

**긴급
진단**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서 치러질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의 준비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홍콩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해왔는지를 W.T.F(세계태권도연맹) 이금홍 사무총장에게 들어보았다.

홍콩이 세계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1986년에 있었던 제12회 필리핀 세계선수권대회 때 열린 총회에서였다.

당시 개최를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프랑스, 크로아티아, 홍콩이었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홍콩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당시는 이미 홍콩의 중국반환이 결정되어 있었다.

홍콩 당국이나 중국 정부측에서도 태권도 세계대회 같은 국제적 규모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어서 손해를 갖는다.

예나하면 홍콩반환과 같은 정치적인 급변기에 그 정치적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콩의 중국반환은 이번 세계대회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적지않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정부가 개최준비업무에 간섭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홍콩의 반환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2001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도 유사무술인 우수(쿵후)의 나라인 중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것도 중국 정부의 호의적 태도의 배경이다.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서는 세계 남녀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개최식에는 무술영화의 세계적인 스타인 성룡 등도 참석할 것이라고.

23일 현재까지 74개국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80여개국 이상이 참가하리라 예상된다.

홍콩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자금조달부서와 경기운영을 위한 실무부서로 나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재정은 주로 기부금과 일부 정부보조에 의지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상근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관중 7천, 80여 자금조달부서와

직장인은 태권도 수련자 혹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날을 잡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중요문제를 결정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극소수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책방향 설정까지 포함해 길게는 2년과 실제 실무 기간 3개월의 진행이라는 식으로 준비의 열성이 대단해 보였다.

관객동원에 매우 열을 올려 개최식에 성룡 등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 관객동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최소한 7000명 이상이 참석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 금 홍

W. T. F
사무총장



준비는?

개회식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고 홍콩 NOC 위원들도 참석하기로 되어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전역에 태권도의 확고한 이미지를 심기 위한 각오로 중국태권도 협회는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남녀 예상우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이다.

기타 전통적인 강국인 미국과 스페인, 중동국가들이

개국 참가 예상 경기실무부서 나뉘

각축을 벌일 것이고 대만의 경우 여자부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는 새롭게 떠오르는 태권도 강국이다. 쿠바가 참가할 경우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쿠바는 공산국가로 누구든지 일단 어떤 종목이건 세계 규모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평생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은 스포츠선수로 대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더구나 선천적으로 기질과 체력이 강해 과격한 스포츠를 매우 좋아해서 구기종목은 물론 복싱 등의 투기종목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태권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팬암태권도 게임 등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여 그 실력을 증명했다.

우리 여자팀에 위협적인 국가다.

개최국인 중국은 이번 대회에 반드시 출전한다.

개최국이 출전하지 않은 예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부산 동아시아경기에서 보았듯 중국 태권도의 수준은 상당하다.

현재 북경대학 등지에서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수련하고 있고 우수 고수들을 태권도 선수로 급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 우수는 물론 조금 개정하면 태권도 경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국 태권도는 강할 수 밖에 없다.

홈그라운드 이점도 무시할 수 없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리라 본다.

중국이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필리핀 대회부터다.

그동안 태권도 국제대회가 열릴 때 잠음이 간혹 있어왔던 심판의 공정성 문제는 엄격한 심판 선발과 강도 있는 교육으로 대처를 할 계획이다.

차렷성과 객관적 판정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매긴 후 등급별로 심판을 각 경기에 안내, 결승전 등 중요한 경기일수록 A등급의 심판을 기용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자주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험 있는 심판들은 가급적으로 배제하여 각국팀 임원과 심판진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다.

선발된 심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정신 교육을 실시해 공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분위기를 형성케 할 것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체점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기훈련도 많이 가질 것이다.

또한 대회기간 중 심판 개개인의 고과를 매겨 다음 국제대회에의 파견여부 결정에 참고하기로 함으로써 심판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러한 엄격한 심판교육과 공정성 확립조치 등과 관련한 운영상의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심판 교육 및 선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대회개최와 동시에 열리는 총회에서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월드컵과 세계대회 차기개최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요 안건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 및 집행부 임원의 선거와 경기규칙 개정안으로 주니어 세계대회 체급의 일부조정, 세계대회 경기규칙에 있어서 경기, 감점기준 등의 통일과 경기규칙 위반행위의 완화 등이 될 것이다.

참고로 세계연맹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임원이 출신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오디 11월 홍콩에서 열릴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중주국 한국은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긴급좌담

그동안 태능선수촌에서 국가대표팀을 지도해 온 코칭스태프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번 홍콩 세계선수권대회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홍콩 제13회 세계 선수권대회

이렇게 싸워야 이긴다

코칭스태프 좌담회

▲ **사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 하시는 전략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도 총감독:** 그동안 우리가 외국선수들에 대해 월등한 경기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국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선수들을 위협할 만한 실력을 지닌 외국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전정우 코치:**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권 선수들과 미국, 대만 등은 이미 한국선수들에 필적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선수들에 대한

- **일시 :** 9월 26일
- **장소 :** 태능선수촌 회의실
- **사회 :** 신창화 기자

참석자

최정도 총감독
전정우 코치
박영수 코치
임신자 코치
양대승 코치

분석이 미비한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박영수 코치:** 그들의 구체적 특기와 선수 개인의 체력상의 특성, 기타 경기운영능력 등에 관해 구체적 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최정도 총감독:** 외국선수들에 대한 분석만을 전담 하는 분석전담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임신자 코치:** 여자부 선수들의 경우가 더욱 심각 합니다.

여자부의 경우는 그동안 외국 선수들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수집면에서 양적으로는 남자부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경기 력이 외국선수에 크게 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정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양대승 코치:** 경기분석용 비디오를 잘 활용해 보시죠. 그런데 여자부의 비디오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최정도 총감독:** 그런데 문제는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외국선수들을 지나치게 경시하여 그들의 경기비디오 등을 모아 놓지 못한 것이 큰 실책입니다.

▲ **사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군요요. 별다른 대처 방안은 없으신지요?

경기를 할 때 대처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 **박영수 코치:** 앞으로의 국제대회를 위한 자료를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번 세계대회부터는 비디오 녹화기가 2대 필요할 것입니다.

1대는 우리 선수들의 촬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국 선수들의 촬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최정도 총감독:** 돈이 좀 많이 들겠군요. (모두 웃음)



▶ 왼쪽부터
임신자 코치,
양대승 코치,
전정우 코치,
중앙이 최정도
총감독, 오른쪽
이 박영수 코치
와 사회 신창화
기자.

▲ **전정우 코치:** 그래서 이번 세계대회 때는 임시방편적인 전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대회개막 때까지 자료를 모아 모든 외국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력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시방편적은 전략이란 것은, 세계대회 당일 경기진행 중에 세컨드(주: 경기 중의 선수를 코치가 코치석에서 지도하는 것)를 보는 코치와 별도로 다른 코치가 경기 중인 다른 외국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선수들이 그 외국선수들과

▲ **사회:** 그 밖에 또다른 문제점들은 없으신가요?

▲ **임신자 코치:** 선수 개개인들의 심리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경기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국제대회 경기경험이 적거나 있더라도 세계대회는 이번이 처음인 선수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선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양대수 코치:** 맞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경기전 심리적 부담은 어느 대회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대회같은 큰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 **최정도 총감독:** 그래서 제가 현재 선수들을 개별 면담하며 경기전략 토의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많은 조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불안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세계대회에 출전했던 선배의 입장에서 저의 경험담을 털어 놓으니 선수들도 상당히 호응하는 눈

▲ **박영수 코치:** 세계대회 때까지 1진과 같이 훈련하며 호흡을 맞춰줄 2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부상선수를 대체한 외부 선수 동원 리스트를 작성 중입니다.

▲ **최정도 총감독:** 차트별로 외부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서 유사한 선수들을 선발 대상으로 해야 스팅링 효과가 클 것입니다.

▲ **사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 선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한 전반적인 대처전략에 관해



▲최정도 총감독



▲전정우 코치



▲박영수 코치

치였습니다. 코치 여러분들이야 수시로 만나서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잘 뛰라고 다그치는 지도 뿐만 아니라 심리불안을 어루만지는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 과거와 달리 평가전을 3차에 걸쳐 치러 세계대회를 앞둔 대표선수들이 지나치게 국내경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결책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자 코치:** 현재 외국선수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지닌 국내선수들을 선정하여 스팅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최정도 총감독:**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부상의 위험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전정우 코치:** 특수제작된 팔, 다리 보호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양대수 코치:** 요즘에는 한국선수들도 상당히 키가 컸기 때문에 지나치게 키 큰 선수들만 의식하는 전략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최정도 총감독:** 키가 큰 선수들에 대한 전략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전략을 큰 변경없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의 키이면서 매우 빠르고 힘이 좋은 외국 선수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 **임신자 코치:** 요즘은 빠르고 힘 좋은 외국 선수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많이 보이던 키만 크고 발차기 자체의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밀어차기에만 의존하는 선수들은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전정우 코치:** 특히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빠르고 힘 좋은 외국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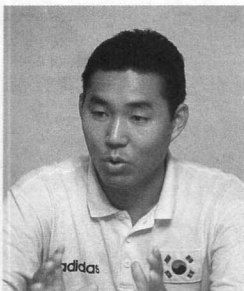
차기(주: 속칭 양발차기, 더블, 쌍발차기)입니다.

그들의 나래차기는 국내선수들이 구사하는 스타일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선수들이 뜻밖의 패배를 당하곤 했습니다.

이번 세계대회 때는 나래차기에 대해 첫 동작에 받아차거나 아니면 뒤로 완전히 빠져서 상대의 공격을 회피해 버리는 전략을 구사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 **최정도 총감독:** 나래차기가 시작되는 첫 동작에 받아차기를 이용해 역습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습



▲양대승 코치



▲임신자 코치

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에는 실점을 할 위험이 큰 듯 하군요.

▲ **양대승 코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지금에는 이같은 일반적인 전략 말고는 달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영수 코치:** 앞으로 남은 기간 외국 선수들을 초청해 많은 친선경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 **양대승 코치:** 현재로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 선수들과 스프링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어 현재로서는 스프링에 집중하기 보다는 한국선수 일반에 적용할 구체적인 전략상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영수 코치:** 제 생각에는 득점이 나지 않더라도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상대의 공격을 첫 동작에 차단하거나 차단과 동시에 반격을 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정우 코치:** 사이드 스텝 등 고난도 스텝을 이용해 회피하는 것과 동시에 연결공격을 가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 **양대승 코치:** 앞발밀어 옆차기(주: Cut발)를 이용

외국선수 상대의 분석 전담반 필요 비디오자료 수집도

해 중심을 흐트러뜨린 후 곧바로 때리는 기술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임신자 코치:** 지난 월드컵 때도 외국 선수들의 나래차기 공격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여 많은 한국 선수들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 밀어 옆차기가 주효하리라는 데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고전적 수법은 이미 외국 선수들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최정도 총감독:** 여러분 모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개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전략들을 수립하여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선수 전체에 적용할 전략상의 전반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전략들을 세워야겠습니다.

▲ **사회:**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스포츠의 활동과 무도활동의 현주소

제4회 한민족 학술회의

때 : 1997년 9월 6일
곳 : 정신문화 연구회

특
집
2

행동철학인 태권도를

21세기의



민 경 호 미국 버클리대학 교수

서론

본인은 60평생을 학교, 특히 대학 체육에 봉사해온 것을 자부심과 강한 긍지로 여깁니다. 본인이 생활해 온 무대가 미국이라는 자유경제 정치에 첨단화한 교육체제에서 35년을 체험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친 학교 체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순수성과 학문적 차원의 교육, 체육교육의 한정성을 강조하기 위

지난 9월 6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치러진 제4회 한민족 학술회의에서 미국 버클리대학의 교수 민경호 박사는 「미국대학 스포츠 활동의 현안과 무도활동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한민족 학술회의에서는 21개국으로부터 31명의 한국계석학들이 초청됐으나 체육 분야의 인사로 초청된 것은 민경호 박사 단 한사람 뿐이었다.

민경호 박사의 강연은 매우 알기 쉬운데다 태권도인은 귀를 기울여 볼 만한 뜻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양해를 구해 「월간 태권도」에 특별히 심기로 했다.

(편집자 주)

◀ 민경호 박사는 USOC(미국 올림픽위원회)공인 미국 태권도 협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국기원 9단 그리고 유도 8단, 합기도 7단을 지니고 있는 무도인이다.
U. C.버클리의 교수를 지내면서 무도교실을 창설, 미국 스포츠계에 깊이있는 무도철학을 소개한 인물로 올해 한민족 학술회의에 체육 석학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정신문화회에서 강연을 가졌다.

해서입니다. 특히 본인은 69년부터 버클리 대학에서 체육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주로 무도를 가르쳐 왔으며, 일찍이 무도연구소를 만들어 미국에서 제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에 더 없는 보람으로 느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에서 태권도 9단, 그리고 유도 8단, 합기도 7단의 명예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도와 태권도 그리고 대학 스포츠를 대표하여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교육 분과위원, 선수



민경호 박사는 「물질만능주의의 현대문명 속에서 행동철학인 태권도를 21세기의 스포츠로 삼아 인간성 회복을 꾀하자」고 강조한다.

미국 선수권, 8년 연속 단체우승 버클리大 무도 프로그램 시작 후

강화 분과위원회와 세계 태권도 연맹 대학분과 위원장, 세계대학 스포츠 연맹에 테크니컬 커미셔너로 국제 대학 스포츠, 특히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클리 대학과 체육분야를 소개하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 활동, 그리고 물론 세계 태권도 연맹의 활동 등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함은 물론 본인의 스포츠와 순수운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버클리 대학으로 알려진 Univ. of CA, Berkeley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9개의 캠퍼스 중에 본교로서 1868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3만명 이상의 학생과 1,500여명의 교수와 78개국에서 온 2,500여명의 방문교수와 400여 분야에 학위과정과 7,000개 이상의 코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연구대학, 또 세

미국 대학스포츠의 활동과 무도활동의 현주소

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논문을 내는 대학으로 미국대학 평가회와 미국 연구 평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6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12명에 전미 과학상(Academy of Science), 68명의 전미 공학상(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그리고 169명의 전미 예술 과학상(National Academy of Arts and Science)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버클리 대학은 현재 33개국에 100여개의 분교를 가지고 버클리 학생 및 교수들의 세계화된 교육과 연구의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 통계에 의하면 100여개 국가에서 2,700여명의 학

(Jimmy Ki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태권도 팀은 미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버클리 럭비팀과 같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단체 우승의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무도 프로그램은 제가 버클리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69년도에 시작하여 현재는 1,200여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이 참가하는 미국 대학에 개설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재 태권도, 유도, 합기도, 가라데, 우수, 태극권, 도수방어 등을 교육 과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치러진 월드컵 태권도대회에 출전한 미국대표팀 한국계 선수들도 끼어있는 미국 대표팀은 남자 페더급의 스티븐 로페즈가 금, 남자 밴텀급의 스티븐 리, 여자 플라이급의 맨드 멜론이 은, 남자 핀급은 데이빗 몬탈보, 여자 라이트급의 리즈 예반이 각각 동메달을 따내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

생들이 Berkeley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클리의 총장은 중국계 Tien 총장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처음으로 동양계 총장이 봉직된 때문인지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나 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미국 대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아시아 여러 잡지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Berkeley 대학이 학술적으로 유명한 만큼 스포츠 체육 활동에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체조, 수영, 농구, 럭비 그리고 태권도에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매트 미운디 선수나 메리 미거도 버클리의 출신이고 미국의 유일한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딴 한국계 지미 킴

버클리 대학에서 스포츠와 체육 교육을 위해 쓰는 예산은 연간 8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600만 달러는 모금을 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것은 버클리 대학이 속해 있는 전미 대학 스포츠 연맹, 1급 대학들에 속해 있는 300개 대학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주로 미식 축구와 농구를 통해 쓰여지며 모금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이 속해 있는 미국 대학 스포츠연맹(NCAA)은 연간 2억 3천 6백만 달러를 벌어들여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쓰고 있는데 50% 이상이 TV 중계 수익금으로 충당되며, 50% 이상을 각 대학에 배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육 및 선수 강화 훈련 분과위원으로 봉사하는 미국 올림픽 위원

회에서도 정부의 지원 없이 연간 1억 6천 5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올림픽과 PANAM게임 참가경비, 그리고 시설과 연구비, 각 경기 단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올림픽의 성공적 참가 및 각 사회 스포츠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800만 달러를 대학들에 4년동안 200만 달러씩 지원하여 대학에서 모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영이나 수구, 유도, 태권도 등을 지원하여 올림픽 선수 양성에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 공인 태권도 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또 현재 세계 연맹 대학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의 국가이고 세계 스포츠

리고 정신 수련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정확한 절대 필요로 하는 체력증진의 목적으로 그리고 정신 수련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정확한 수련자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대략 4천만 이상의 수련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유단자 수는 400만으로 80%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집계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유래가 없는 태권도의 세계화와 스포츠의 꽃인 올림픽에 성공적인 가입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발전, 특히 서울 올림픽의 대성공 그리고 본국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생활의 수단으로, 또 태권도

연간 8백만 달러, 스포츠에 1200여명 참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가르쳐

역사에 금자탑을 세운 태권도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무술 스포츠로써 1973년 5월 28일 세계 연맹을 조직함으로써 불과 25년만에 아시아 지역에 45개국, 아프리카 지역에 23개국, 유럽 지역에 45개국, 미주 지역에 34개국 등 총 147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시범경기 종목은 거쳐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한국어를 붙여, 영어, 일어에 이어 4번째로 올림픽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실은 한민족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태권도를 발전시킨 25년간의 활동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대회를 위시하여 6개의 세계 대회와 4개의 지역 대회 및 12개의 세계 및 지역 종합 스포츠 경기에 태권도, 기타 운동과 같이 참가하며, 더 광범할 사항은 스포츠 태권도는 단지 무도 태권도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태권도는 하나의 인간 표현에 종합 예술로서 본래의 전통적인 수련 목적이었던 도수 방어술로서 또 현대 사회에서 절대 필요로 하는 체력증진의 목적으로 그

보급을 목적으로 태권도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많은 한국인 및 현지인 태권도 지도자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외교술에 능한 김윤용 총재가 생산적인 나이를 태권도 발전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태권도가 세계 제일의 격기 스포츠 그리고 무도가 될 수 있도록 기술과 학문적인 연구가 국가차원에서 계속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 의

스포츠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스포츠 및 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서투른 과제가 되겠지만 60평생을 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분석과 의견을 주체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신체 운동과 스포츠는 안전을 고려하면서 정서 함양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스포츠의 활동과 무도활동의 현주소

물론 돈을 앞세운 프로 스포츠나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 스포츠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순수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궁극적으로 승리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페어 플레이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엘 쿠베르탱 남작도 올림픽 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주어진다 여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과 스포츠

에서 도시의 건물 숲 속에서 생을 연장해야 하는 사회 환경에 많은 정서 신체 건강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할 세대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줄 압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정부 건강연구소(NHI)의 발표에 의하면 90%의 인구가 신체운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25% 밖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운동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5만에서 30만의 인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체운동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절대 필요한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해

한의학 + 스포츠 장기발전 계획세워

..... 21세기를 향한 국력 신장에 기여

▶김경호 교수가 이끄는 U. C버클리의 무도 교실은 태권도를 비롯한 동양무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 현재 3권째의 무도관련 논문집을 발간했다. 이 논문집에는 주로 한국의 문화, 철학 등이 학구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참가자의 건강 증진 및 정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 발전해 가는 운동 과학과 스포츠 의학의 연구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적거나 큰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던 시절의 서울 거리와 지금의 서울 거리를 비교해보시면 명백할 것입니다. 협달과 심박수와 같은 생리적 상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과 같은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도 각자 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심리적 상태나 정신 집중력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보약이 아니라 국약이 되기 때문에 운동 검사 기사나 운동 처방사라는 새로운 직업은 필요로 하고 있는 예방의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이 점차 자연을 벗삼아 삶을 즐기던 세대

야 할 줄 압니다. 기름을 탱크에 가득 넣고 세워 둔차는 생산적일 수 없고 녹이 더 빨리 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공대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4년제 대학만을 기준으로 한 인구비 대학생 수가 10만 명당 3,418명으로 3,350을 가진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996년도에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양을 따르지 못한다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읽었습니다. 그 실례로 버클리 대학에 유학 오는 많은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체력이 부족하여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원생들과 학문적인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이었으며, 그 원인이 가끔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학교 행정 철학 및 교육 이념의 방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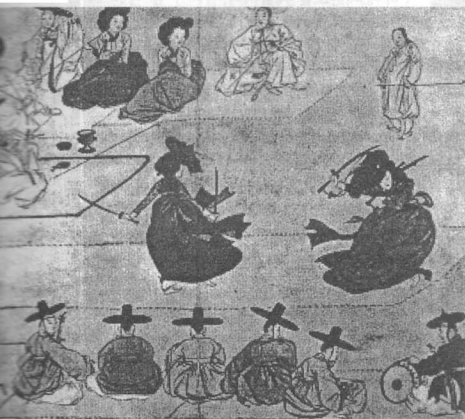
로 실제로 운동장에다 도서관을 짓는 그리고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는 명문 대학생들의 고등 교육 행정에 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많은 운동시설을 제공해줄은 물론 운동 선수들을 학업에도 성공할 수 있게 하고, 또 최대한의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대부분 청소년들은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나 골프의 타이거 우즈가 되기를 원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느냐 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결론

결론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촉진시킬 현대의 운동 처방과 스포츠 의학에 비전을 두고 또 그 바탕 위에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감한 장기적 교육 투자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책임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새롭게 제창되고 있는 현실이며,



대학 스포츠 연맹과 미국 프로 스포츠 리그의 지원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동을 잘하면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삶을 함께 하는 여건하에서 더욱 발전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스포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 A 폭동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인종간 스포츠 교환을 통한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종교계의 인종화합 노력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꼭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흑인들의 스포츠 선호도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와 대학 체육 그리고 버클리 무도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와 전문 인력을 확보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의 문제점들을 제점검하고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스포츠를 창의적으로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에 한의학 전문가들과 스포츠 지도자들의 책임임 줄 압니다.

물론 우리의 무도, 특히 행동철학인 태권도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본 정신 문화 연구원을 중심으로 21세기를 향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기여하는데 중점적 투자의 일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수도장을 찾아서



경기도 수원

한국체육관

관장 · 이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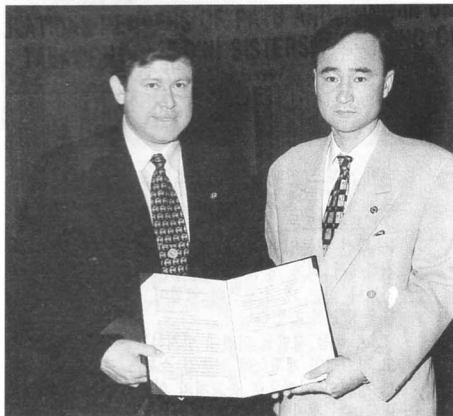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는 해마다 시도별로 가장 우수한 도장에게 우수도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여 우수도장상을 수상한 한국체육관(관장 이문형, 40세, 6단)을 찾아가 보았다.

나라사랑 6가지 복창하고 수련 시작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를 길러 약한 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웁시다.”

지난 9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한국체육관에서는 20여명의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련에 앞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수련생들은 매일 도장 벽에 큼지막하게 내걸린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을 외치는 것으로 수련을 시작한다. 태권도 수련은 힘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도인의 자세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수련이 계속 이어진다. <나라 사랑 여섯가지>와 <나의 맹세>를 복창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갈 수 있다.

“나라 국기(태극기)를 사랑하자, 나라 노래(애국가)



▲이문형 관장이 지난 4월 17일 웅인대에서 볼리비아 태권도협회장과 자매결연 조인서를 교환하고 있다.

를 사랑하자, 나라꽃(무궁화)을 사랑하자, 나라 언어(한글)를 사랑하자, 나라 땅(자연)을 사랑하자, 나라 운동(태권도)을 사랑하자.”

“나는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도를 연마하는 무도인으로서 심신을 단련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며 이웃에 봉사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국의 등불이 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입을 모아 나라사랑과 나의 맹세를 외치는 모습은 자못 진지하고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서울 시내 우수도장 탐방을 마치고 경기도내 도장을 찾아나서면서 지방의 도장들은 서울과 어떤 점이 다를까 내내 궁금했다. 흰색 아치형 돌이 산뜻하게 눈에 들어오는 수련 실내체육관을 돌아 한국체육관이 위치해 있다는 송정초등학교로 가는 거리는 서울보다 무척 한적하고 여유스러워 보였다. 효자로 유명한 조선조 정조가 부인인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이 고개를 넘어서면 아버지의 묘소가 보이지 않자며 부친의 묘가 있는 곳(현재 화성군 용건릉)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는 바람에 행차가 더디어졌다는 지지대고개의 유래도 가슴 뭉클했다. 노송치대라 불리는 수련의 초입에 심어진 수백년된 히리굼은 소나무들을 보며 아버지를 그리는 아들의 애뜻한 효심이 느껴오는 듯 했다.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이 10명 수련

한 국체육관과 마주보고 있는 송정초등학교도 학교 이름 그대로 정문과 이곳저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산뜻하게 지어진 빌딩의 3층에 입주한 체육관을 찾아 계단을 오르면서 '효의 도시'라 불리는 수련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의 자세는 어떨까 더욱 궁금해졌다. 태권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야가 확 트일 정도로 넓고 깨끗한 마루바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지어선 초등학생들이 외치는 합성에서 금강함이 감탄으로, 감탄이 태권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국체육관에서는 현재 110명이 수련하고 있다. 이문형 관장은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통하여 예의를 몸에 익히고 질서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민주시민이



▲이관장이 대학학원 때인 1977년 국가원에서 열린 중별 선수권대회에 용인대의 전신인 유도대(柔道大)의 대표단으로 출전한 모습. (앞줄 가운데가 이관장이고 바로 뒷편에 현재 용인대 태권도학과장인 윤상화 교수가 서 있다.)

되어 줄 것을 늘 강조한다고 한다. 그래서 도장 벽에 여러 경구를 써서 붙여두고 수련시작 전에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수련을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련생들이 도장에서 태권도 기술만 배우고 돌아가는 것을 이관장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여도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과 <나라사랑 여섯가지>, <나의 맹세>를 반드시 외워 실천하도록 한다. 태권도장에서 지도자가 수련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태권도장은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관장의 인생철학이자 '태권대에찬론'이다.

오후 3시부 수련에 참석한 20여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수련이라는 도시가 주는 효의 이미지 탓인지 볼썽한 두 주먹과 힘차게 내치르는 발차기가 유난히 믿음직해 보였다. 빨간색과 검정색이 반반인 품대를 아무지게 매고 맨앞줄에서 기합을 넣으며 사범님의 품새를 따라하는 송정초등학교 3학년 박상용 군(10세).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 태권도를 배

태권도협회 선정 우수도장 탐방



▲송정초등학교 3학년 박상용군(가운데)이 멋진 준비품새를 취하고 있다.

우기 시작했습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상용이는 1년전인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1품을 따냈다. 처음 입관할 당시만 해도 사별님의 물음에 대답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태권도를 수련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요즘은 자기의 생각을 또렷이 대답할 수 있을만큼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이관장이 태권도를 배운 것은 경북 군위군 부계중학교 3학년 때, 8형제 중 일곱 번째인 이관장은 형들이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권도에 입문하게 되었다. 차츰 소질이 부각돼 대구 경신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대구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태권도 특기로 현재 용인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유도대학 격기학과 태권도부에 진학해 유대(柔大)라는 유니폼을 입고 태권도계에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이관장이 입학했던 1977년 처음으로 태권부 전공자를 뽑았기 때문에 이관장은 용인대 태권도학과 1기인 셈이다. 당시 동기생으로는 현재 용인대 태권도학과 학과장인 윤상화 교수가 있고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인으로 이관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동기생들은 주로 체육교사나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관장은 1985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현재와 똑같은 이름인 한국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대구동중 태권도 코치로 활약했다. 당시 대구동중의 교기는 유도였으나 이관장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를 교기로 바꾸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그는 선수를 키워 1988년도 제17회 소년체전에서 당당히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이관장이 태권도를 전공한 최초의 사범이었기 때문에 선수양성은 물론 도장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긍지에 불타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후 1990년 4월 수원으로 올라와 지금의 자리에 한국체육관 문을 열었다. 대구에 있을 때는 태권도학과 동문들 소식을 듣기도 어려웠으나 학교 가까이로 거처를 옮기면서 동기생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에 올라온 그 해 용인대 태권도학과

총동문회를 발족시켰다. 1, 2차 초대회장을 맡은 이관장은 먼저 용인대 총장기 전극남너 고교 태권도전수권대회를 유치해 1991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 이문형 관장 약력

1958년 경북 출생 (40세)

태권도 6단

전 대구동중, 오성중 태권도부 코치

현 경기도 지방경찰청 태권도 지도위원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범위원

팬암연맹 기술자문위원

용인대 태권도학과 동문회 고문

수원시 태권도협회 심사이사

한국체육관 관장

〈참고〉

미성체육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5-3

전화번호 : 0331-45-5123

팩스 폰 : 011-751-3232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태권도학과 동문회에서는 매년 300만원씩 대회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관장은 지난 4월 17일 팬암연맹 지부인 볼리비아 태권도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일선 도장이 국가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팬암연맹 이차석 회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자매결연식은 용인대 총장기 대회기간 중 용인대에서 거행되었다. 앞으로 한국체육관에서는 볼리비아에 사범을 파견하고 친선 경기와 시범단 파견도 계획중이다. 우선 올해는 겨울방학 동안 20명의 시범단을 구성하여 볼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관장은 요즘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성전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태권도 성전은 우리 태권도인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 그의 기본인식이다. 그는 태권도 성전 건립을 정부나 기업에 의존해 지을 것이 아니라 태권도인들의 손으로 지어야 한다며 전 태권도인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 4천여개의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20만원씩만 성전 건립기금으로 내놓아도 80억의 자금이 모아집니다. 이것이 발판이 된다면 태권도 성전을 건립하는 문제는 태권도인들의 손으로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태권도 박물관을 건립하고 교육자료집도 발간해 세계 속에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당당하게 떨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관장은 부인 박운희 씨(37세)와 1남1녀를 두고 있

다. 딸 경민(10세)이와 아들 재병(6세)이도 아빠를 닮아 운동소질이 탁월하다. 아직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함께 태권도복을 입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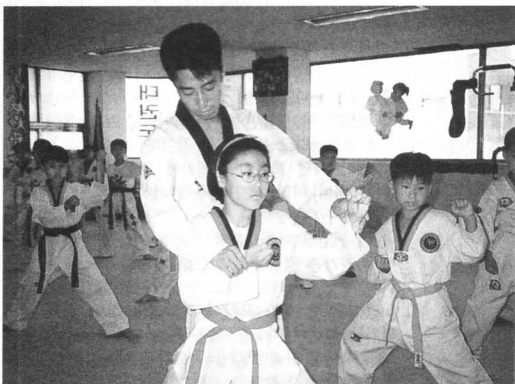
형 6명이 모두 유단자 성전건립, 태권도인들이

이 관장은 형 6명이 모두 유단자인 태권도 가족. 이 중 세째형이 2단, 네째형이 5단, 다섯째형이 2단, 여섯째형이 3단, 이관장이 6단이다. 형제끼리 무려 18단을 보유하고 있는 셈. 8형제 중 유일하게 막내만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 형들이 모두 태권도를 잘 하니가 그 백을 믿은 모양이라고 농담을 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태권도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이관장. 지도자의 자질은 학벌과는 별개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양심적이고 신의를 중요시하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의 편견에 소신껏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걸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런 그에게 요즘 몇몇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검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

"요즘은 검도가 인기를 끌자 태권도인들 중에는 검도 사범 자격증을 따서 태권도장 옆에 검도장을 차려 놓고 태권도와 검도를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련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는 태권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따져 우리가 지키고 전수해야 할 국기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채 검도를 가르치는 태권도인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는 특히 체력이 좋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이 태권도가 아닌 검도를 배우게 된다면 우수선수 육성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태권도인에 의한 검도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근 사범이 수련생들에게 품새를 고쳐주고 있다.



하 권 의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권위자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O”형 다리의 치료

어린이의 다리는 안짱다리 등의 회전 변형이 성장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 다리 또는 무릎 등에서의 각형성으로 인한 변형이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의 다리는 신생아 때부터 만 2세 때까지는 무릎부위가 “O”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태아 때 모체 내에서의 자세에 의한 것이다.

정상적인 발육을 보이는 어린이라면 대개 3, 4세를 전후로 하여 “O”형다리는 오히려 “X”형 다리로 일시적으로 변하게 되고 서서히 몇년에 걸쳐서 곧은 다리로 변하여 간다.

그러나 어린이마다 다리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나 키가 어린이마다 다른 것처럼 무릎의 모양도 약간의 형태변형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다리의 “O”자형 변형이 극심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원인의 다리 변형은 보기 드물다.

그러나 서양인과 비교하자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O”자형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어린이 때 뿐만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O”자형 다리 형태의 원인으로서는 인종적, 유전적인 소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러한 다리 변형이 있는 경우라면 자식들 중에는 이러한 변형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형은 질병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종의 체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병이 아닌 체질적인 원인에 의한 다리의 변형은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점점 아름다운 기준이 서양인의 미의 기준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젊은이들은 신체의 서구화 경향을 갈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가능한 하면 자식의 다리 모양이 서양인과 같이 길고 곧게 되기를 원하며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식의 다리 모양을 치료하고 싶어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인 것 같다.

다리 및 무릎 변형의 원인, 치료, 주위 인체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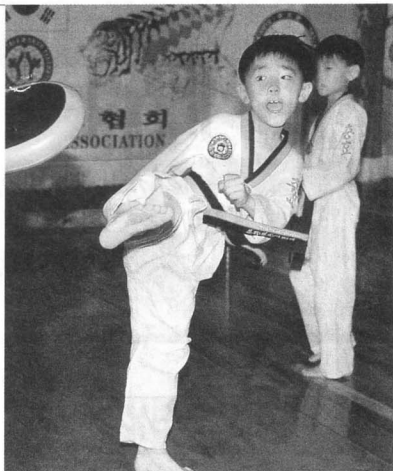
장기적 과다교정과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자형 변형이 있는 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대개 성장과 더불어 저절로 교정이 된다.

특히 어린이들 중에서 걸음마를 빨리 한 경우에 특히 이런 변형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3, 4세를 전후로 교정이 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매우 심한 변형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방사선 촬영을 하여 신중히 각도 등을 측정한 후 대개 보조기 치료를 시작하며 수년간의 보조기로도 변형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교정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어린이에게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한편 사춘기에 들어서 다리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다리의 변형이 생기면 부모 뿐만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인다.



질병이라기 보다 일종의 체질 심한 경우 바른 교정법은 수술

"O"자형 다리 변형이 사춘기에 생기는 경우, 이것이 과연 병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모들로부터 타고난 것인지를 구별하여 치료 유무를 결정한다.

또한 이를 치료를 하여야 할 것인지, 치료를 하자면 어떠한 치료가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변형이 아주 심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형은 결모습만 조금 보기 흉할 뿐 전혀 운동이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춘기 연령의 경미한 다리의 변형은 대개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형이 심하면 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한 주위 관절에 무리한 힘이 과다되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각 변형이 심해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대개 무릎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며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춘기 여자들인 경우에 변형이 심하면 남자들에 비하여 교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남자들에 비하여 골다공증의 발생이 흔하

고 이로 인해 무릎 주위의 골 강도가 약해지고 몸무게 등의 외력이 증가하면서 변형을 악화시켜 관절염의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다리변형을 보조기 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를 시도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시중에는 다리의 모양을 교정한다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보조기구들이 다리의 모양을 교정하는데, 특히 사춘기 청소년 이상의 연령에서,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심한 무릎 변형의 올바른 교정 방법은 수술적 치료이다.

그러나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 위험성, 합병증, 경제적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면밀히 따져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의 극소수 사춘기 청소년들에 시행하는 수술적인 치료의 목적은 변형의 교정과 앞에서 언급된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후유증의 예방에 있다.

챔피언의

영양학



■ 식품영양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위생학연구소장 이사

장 정 옥 박사

비타민과 무기질

운동수행능력 유지에 필수적

비타민

히 영양이라면 단백질, 당질, 지방 등의 에너지원 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비타민과 무기질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모자라면 운동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수들은 일상의 식생활 속에서 칼로리 섭취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 호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비타민

비타민과 무기질은 산화적 대사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러므로 운동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적당히 섭취해 주어야 한다. 비타민 또는 무기질 결핍이 운동 수행능력에 손상을 줄 수는 있으나, 운동선수에게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권장량 이상으로 보충해 주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수용성 비타민은 식품의 산화와 에너지 생산에 포함되는 각종 대사과정에 보조 효소 또는 촉매로서 작용한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저장되지 않고 배설되기는 하나, '다량 섭취시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수용성 비타민 역시 다량복용시(특히, B₆와 나이아신)의 독성이 보고된 바 있다.

티아민은 에너지 대사 중 주로 당질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필요량은 총열량 섭취에 의해 좌우된다. 즉, 열량 섭취가 증가할수록 티아민 섭취도 증가되어야 한다.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의 권장량 역시 열량 섭취에 달려 있으나, 나이아신은 트립토판에서 합성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필요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운동선수에게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을 권장량 이상 보충했을 때 운동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비타민 C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비타민 영양제로



서, 이것의 보충이 최대 산소 소비량, 호기적 대사 조건, 순발력 등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비타민 C의 섭취가 부족한 운동선수는 운동능력의 감소화되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식사를 살펴보면 무기질 중 칼슘과 철분이 부족되기 쉽다. 칼슘은 골밀도와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자 운동선수들이 약 2~37%가 경험하고 있는 운동성 무월경(athletic amenorrhea : 심한 훈련으로 인한 월경의 중지)은 뼈(특히 요골)의 손실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운동으로 인한 골밀도 증세가 있는 여자 선수는(특히 열량 섭취가 낮을 때) 1일 1,000~1,500mg의 칼슘이 필요하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철분 영양, 염분 섭취량 및 칼륨 섭취량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따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철분

● 철분과 운동 수행능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기적 대사에는 산소가 필요하며,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의해 체조직으로 운반된다. 운동선수에게는 호기적 대사가 매우 중요하므로(특히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에서), 헤모글로빈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서 중요한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가 산소를 이

용하는 데도 관여한다. 즉,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오글로빈이 ATP가 생성되는 장소로 산소를 운반하여 주며, 또 호기적 대사에 철분 함유 효소가 필요하다.

한편, 앞서도 잠시 언급한 운동성 빈혈은 지구력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서 가끔 나타나는데, 훈련을 중단하면 사라진다. 스포츠 빈혈의 원인은 혈액의 희석과 생리적인 적응 때문으로 생각되며, 철분 보충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특정 훈련(예: 달리기, 군대훈련식 행진 등)으로 인한 장의 출혈 및 장의 적혈구 세포의 파괴로 철분이 손실된다고 하였다. 한 예로, 남녀 마라톤 선수들의 경기 후 대변을 조사한 결과, 그 중 약 23%에서 장출혈의 증거가 되는 혈액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므로 장거리 육상선수(100km/week 이상)에 있어서는 철분 결핍 여부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철분결핍의 영향

운동선수 중에서도 특별히 월경을 하는 여자 운동선수, 체중 조절을 위하여 식사 제한(dieting)을 하는 선수, 육류를 전혀 먹지 않는 선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급성장기의 청소년 선수들은 철분 결핍의 위험이 크다. 부적당한 철분 섭취시 체력과 지구력이 감소하고, 피로가 쉽게 오며, 집중력이 감소하고, 시력의 감퇴 및 학습능력이 저하됨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철분 결핍으로 진단된 운동선수들은 철분 영양제를 먹어야 하며, 철분이 풍부한 급원식품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철분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

일단 발생한 빈혈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운동선수를 위한 식사지침에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동물성 및 식물성 급원)의 충분한 섭취'가 아주 중요하다.

● 철분 결핍의 예방

월경을 하는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우, 식사 중의 열

챔피언의 영양학

량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충분량을 섭취하지 않거나, 월경으로 인한 지나친 철분 손실 등으로 인해 철분 결핍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훈련이나 경기 전의 정기검진 및 신체검사시 이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철분 결핍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것이다.

성인 남자 운동선수의 철분 결핍은 매우 드물다. 이들의 철분 요구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많은 양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전형적인 운동선수의 식사로 쉽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철분 결핍이 있

콩류, 동물의 내장 등에 철분 많아 염분 섭취할 땐 물도 함께 마셔야



다면 어떤 형태이건 혈액의 손실이 있을 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장 거리 마라톤 선수에서 흔히 나타난다.

염분

●체내에서 염분의 역할

체액을 알카리성으로 유지시켜 체내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필수적인 이온들에는 소듐(Na), 포타슘(K), 칼슘(Ca) 및 마그네슘(Mg)이 있으며, 이들은 식사로부터 제공되어야만 한다. 체액 중에는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가 가장 높으며, 소듐은 주로 세포외액에, 포타슘은 주로 세포내액에 존재한다. 이들 금속이온은 체내의 산-염기 평형의

유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수분 분포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 혈액 내, 그리고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수분 분포는 삼투압의 미세한 균형에 의해 조절된다.

●염분의 섭취

염분의 과량 섭취로 세포외액의 소듐 농도가 증가하면 이를 희석시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사과정에 필요한 세포내액의 수분이 세포외액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심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세포내액에 적당량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염분의 섭취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야 한다(1,100~3,000mg).

한다.

청소년기의 운동선수들은 왕성한 신체 발달로 인하여 철분 결핍의 위험이 크므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훈련이나 경기 전의 신체검사시 영양상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운동선수들의 운동능력이 예상 밖으로 저조할 때는 이들이 충분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철분 요구량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시켜야 한다. 철분이 강화된 곡류, 콩류, 녹색잎 채소, 동물의 내장 등은 비교적 값이 싼 철분 함유 식품들이다. 5가지 기초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된 균형된 식사라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철분을 비롯한 기타 영양요구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극단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실제 필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신체는 염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식에 소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즉 알도스테론(aldosterone)호르몬은 소변으로 배설되는 소듐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땀을 통한 소듐 손실이 지나치게 클 때는 땀샘을 조절하여 땀 중의 소듐 농도를 감소시킨다. 염분의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으면 수분이 세포외액에 모이게 되므로 세포내액이 고갈된다. 그러므로 염분 섭취량을 고려하여 좀더 많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실된 수분이 완전히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 정제(tablet)'와 같은 농축된 염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염분의 보충

운동시 많은 양의 땀을 흘렸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소금'을 보충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매우 심한 운동으로 인해 손실된 염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할 정

도의 소금이 평소의 식사 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금 정제의 복용으로 구토, 매스꺼움, 탈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스포츠 의과대학의 한 보고에 따르면, 땀 분비량이 체중의 5~7%(예: 체중 80kg인 선수의 경우, 4~56%의 땀) 이상에 해당될 때 소금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땀을 흘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소금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식사에 소금을 첨가하거나 희석한 소금물(1.5g/L이하)을 공급한다. 그러나 충분한 수분 공급 없이 소금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오랜 시간 동안의 운동 후 물만을 마셨을 때는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즉 장시간의 운동으로 상당량의 소금이 손실되었고, 계속해서 마신 물이 남아 있는 소땀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저나트륨혈증의 증세로는 현기증, 무력감, 근육강직, 정신혼란, 발작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시는 전해질 용액의 보충이 필요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스포츠 음료에 들어 있는 양이면 적당하다.

일반 간식의 열량기

식품명	분량	열량 (cal)	식품명	분량	열량 (cal)
Sandwich :			바나나	기장 6-in	130
햄버거 넣은 것	직경 3-in	330	오렌지	보통 것	70
Peanut butter	1 Tsb	330	배	1개	65
Cheese	30g	280	건과류 :		
Ham	30g	320	땅콩	15~17개	85
음료 :			호두	6~8개	100
콜라	3/4C	75	사탕 :		
홍차, 커피(그대로)	1C	0	초콜릿	1개 (30g)	155
홍차, 커피(크림 2 Tsb,			캐러멜	2개	85
설탕 2Tsb 넣고)	1C	90	사탕	직경 1.5cm	95
술 :				기장 7cm	
맥주	1C	110	피넛뿌리	1조각	110
하이볼	1C	185		25×25×3/8 in	
마티니	보통 것	140	후식 :		
포도주	1/4C	95	파이애플	파이팬 크기의 1/6	375
쉐리	1/4C	75	카스터드	파이팬 크기의 1/6	265
스카치	3Tsb	130	케이크		350
과실 :			도넛	1개	15
사과	직경 3-in	75	아이스크림	1/2 C	20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연재 제8회〉

제8회 (제1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여자경기, 정식종목으로 첫선보여 53개국서 432명의 선수 참가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가 1987년 10월 7일-11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항구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1976년 유럽태권도연맹을 탄생시킨 도시이기도 하다.

지구촌 53개국에서 온 432명의 선수, 5백여명의 각국 임원, 국제 심판 등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양적인 면에서 최대의 태권도제전이라 하겠다. 그간 두 차례 시범경기를 치른 바 있는 여자경기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여 기존 성인 남자경기와 함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새 장을 열게 됐다.

대회 개최 이틀 전에 열린 총회는 대회 장소인 바르셀로나시 콜롬버스 동상이 있는 광장에서 도보로 십분 거리에 위치한 팔라시오데 콩그레스 출이었으며

57개국 18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한국 대표는 대한태권도협회 황춘성 전무이사(현 부회장 및 기술심의의장)가 참석하였다.

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내용은 일부 규약개정, 차기 개최지 및 월드컵 개최국 선정, 그리고 4개국(부탄, 자이레, 바바도스, 안도라) 신규가입 등이었다.

여기서 규약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회유치 보증금제로 미화 5천불, 분과위원회 보강, 세계대회 3회 이상 불참시 회원자격부여, 여타 국제 태권도 단체가 입불가 및 긴급한 의제 발생시 총회에 우편으로 투표 가능 등이다. 그리고 제9회 세계대회 개최국 선정 투표에서 한국이 필리핀에 38:14로 압승했고 '88 월드컵 유치는 이집트가 멕시코를 33:22로 물리쳐 개최권을 획득했다.



▲제8회 세계대회의 개회식 장면. 국가 이름이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다.

IR 강습회 개최

제15회 국제심판강습회가 10월 1일~4일간 바르셀로나 플라야엘 호텔에서 7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강습회에 한국은 6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습회의 강사는 강원식 세계연맹기술위원장, 김용호, 김찬용 씨였다. 강의 내용은 경기규정, 세계연맹규약 및 심판 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불을 뽐는 열전 4일간

10월 7일 : 대회 첫날 경기에 남자 밴텀급에 유명식 선수와 여자 페더급에 김소영 선수가 각각 출전했다. 유선수는 예선 1차전에 요르단의 라바디디 선수를 KO승으로 가볍게 물리쳐 호조를 보였으며 결승전에서 터키의 베즈와 맞서 1회전서 열세에 물러 우승이 어려운 듯 했으나 2회전서 돌려차기로 이를 만회했다.

3회전서도 유선수는 베즈의 받아차기에 걸려 짐수를 빼앗겨 궁지에 몰렸으나 막판에 앞차기 유효타를 가해 2-1 판정승,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기면서 제7회 대회에 이어 2연패 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여자부 페더급의 김소영 선수는 결승전서 미국의 닷슨과 치열한 공방전 끝에 동점을 이루었으나 우세승 판정으로 제1회 여자선수권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다.

10월 8일 : 경기 이틀째, 남자 플라이급 강장모, 헤비급에 고영철 선수, 그리고 여자 플라이급에 이영, 밴텀급은 배은정 선수, 모두 4명이 출전했으나 2명은 예선탈락하고 1명이 2위를 차지하는 등 한 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데 그쳤다. 한국 남녀 각 1명씩의 예선탈락은 큰 이변으로 나타났다. 그간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회대회 이후 1, 2체급에서 패권을 빼앗긴 바 있으나 예선탈락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제8회 세계대회의 경기모습. 7회 때와는 달리 헤드기어를 쓰고 있다.

정국현, 세계대회 4연패 위업 달성 페더급 결승서 조직위촉 행패

플라이급에 출전한 강창모 선수는 17세의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 출전.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했으나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결승에 진출하여 인도네시아의 부디 세티아완을 맞아 돌려차기, 뒤차기를 적절히 구사하여 심판전원의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헤비급의 고영철은 예선 2차전에서 한국계 미국선수 지미 김에게 패해, 탈락했다.

여자 플라이급의 이영이 결승전에서 대만의 페이 윤야오에게 판정패, 은메달에 그쳤고 밴텀의 배은정은 KO승 등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3회전에서 의외의 북병 터키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다.

10월 9일 : 중반전에 돌입한 삼일 째, 남자 웰터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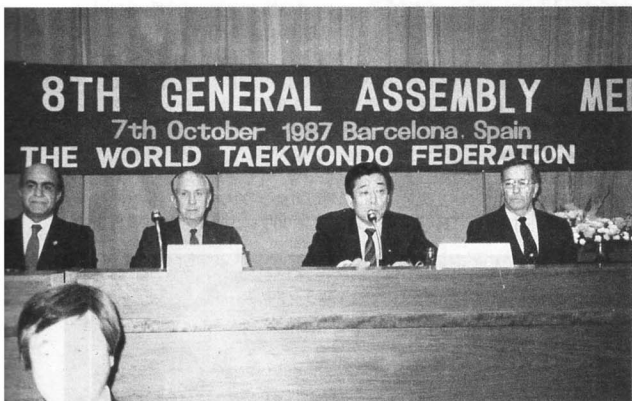
정국현, 핀급에 임성욱 선수 그리고 여자 헤비급에 장윤정, 미들급에 김현희 선수가 출전했다. 여자부 헤비급의 장윤정은 준결승에서 미국의 2미터 5센티의 장신선수 리네티 러브에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고 미들급 김현희 선수는 예선 2차전에서 대만의 왕 치 유에 판정으로 패해 탈락했다.

한편 남자 웰터급의 정국현과 핀급의 임성욱이 각각 금메달을 추가. 이날까지 8체급 중 4체급에서 우승해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남자부 종합우승이 확정됐다.

특히 정 국현은 이날 스페인의 존 라이트와의 결승전서 돌려차기, 뒤차기, 360° 회전차기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일반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 판정승을 거뒀다. 이로써 정 국현은 최초로 세계대회 4연패

◆ 한국 대표 선수단

- 단장 김성태(강원도 태권도협회장)
- 감독 김용서(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부회장)
- 남자코치 유병호(대태협 선수강화분과 부위원장)
- 트레이너 이계승(대전체고 코치)
- 선수
 - 핀 급 : 임성욱(계명대) -플라이급 : 강창모(동성고) -밴텀급 : 유영식(한체대)
 - 페더급 : 정승환(지하철공사) -라이트급 : 양대승(한체대) -웰터급 : 정국현(지하철공사)
 - 미들급 : 이계행(조선대학원) -헤비급 : 고영철(유도대조교)
- 여자코치 김영인(청산여상 코치)
- 트레이너 강중식(제주도 태권도협회 총무이사)
- 선수
 - 핀 급 : 장이숙(청산여상) -플라이급 : 이영(경희대) -밴텀급 : 배은정(성신여대)
 - 페더급 : 김소영(성신여대) -라이트급 : 이은영(경희대) -웰터급 : 김지숙(경희대)
 - 미들급 : 김현희(경희대) -헤비급 : 장윤정(명지대)



▲규약개정, 차기 개최지, 신규 가입국 등을 결정한 8회 세계대회 총회.

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핀급의 임 선수는 결승전에서 멕시코의 토로엘라에게 시종 밀리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3회말에 1점을 따내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행운을 얻었다.

10월 10일 : 4일째 경기는 남자부 페더급에 정승환, 미들급에 이계행, 그리고 여자부 핀급에 장이숙, 웰터급에 김지숙 선수가 출전했다.

정승환은 1차전에서 스웨덴의 품미아 선수를 맞아 긴장 탓인지 게임을 잘 풀지 못했으나 판정승으로 2차전에 진출, 프랑스의 크리 엘리트를 맞아 앞발 들어찍기, 돌려차기 등 공격으로 이겼고 8강에 진출, 그러나 터키의 엘마리 선수에게 판정패했다. 미들급의 이 선수는 노련하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 호조를 보였고 특히 준결승전에서 이태리 로베르토 선수에게 뒤차기로 KO승을 거뒀다.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프란시스코를 일반적으로 몰아붙여 판정승으로 몰리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여자 핀급 장이숙은 결승에서 멕시코의 모니카 토레스에게 여유있게 판정승을 거둬 금메달을 추가했다. 웰터의 김지숙

은 결승에서 스페인의 코랄 비스투에르에게 아깝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었다.

10월 11일 : 경기 최종일, 남자 라이트급에 양대승, 여자 라이트급에 이은영 선수가 출전하였다. 라이트급의 양선수는 1차 예선전에서만의 특성체 선수를 맞아 노련한 경기운영과 묘기 발차기 등 기술구사로 우수, 이어 요르단, 터키 선수를 차례로 격파했다. 결승전에서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인 스페인의 NOC 위원장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미란치 IOC 위원장에게 김운용 총재가 총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스페인의 토르토사 선수에게 옆차기와 뒤차기 등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판정승,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라이트의 이 선수는 결승전서 대만의 팡린 선수를 맞아 선전하여 우승의 영광을 얻어 한국은 최종일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팀은 8개 체급 중 헤비급과 페더급을 제외한 6개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팀은 금 3, 은 2, 동 1개를 차지해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하였다.

조직위촉, 불미스런 행위

대회 4일째인 10일 페더급 결승전인 대만 대 스페인전에서 스페인에 KO패가 선언됐을 때 대회 주최측과 관중들이 보여준 태도는 이번 대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사건은 2회 1분여 만에 스페인 토너 선수가 다운, 1분 이상 일어나지 못하자 심판원들이 경기불능으로 판정, 대만에게 KO승이 선언됐다. 이미 관중과 주최측의 이성없는 항의가 시작됐다. 관중들은 경기장에 캔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소중위원 5명이 40여분 감금됐고, 이 중 1명은 스페인 출신 심판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대회 운영요원이 페더급 시상식이 열리기 직전 시상대마저 철거해

버렸다.

국제심판들은 다음날 11일 경기직전 대회조직위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3시간 동안 경기에 입하지 않자 조직위측이 굴복, 다시 경기가 재개됐다.

이번 대회는 그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인해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 관중동원 면에서 결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기력향상 연구기금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구기금이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국현, 이계행, 유명식 선수에게 주어졌다. 이는 83년도부터 체육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해온 경기력 향상 연구기금은 각종목별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왔는데 태권도 선수로 연구혜택을 받은 선수는 김중기, 정국현(이상 은장), 최정도, 허송, 박오성, 김상철, 유명학, 이동준(이상 동장) 선수였다. 그리고 이번 세계대회로 이계행(동장), 유명식(동장) 선수가 추가되어 모두 10명이 연금 수혜를 받게 됐다.



▲김운용 총재가 3위 입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종합 순위 (종합점수제 채택)

남자	1위	한국
	2위	스페인
	3위	미국

여자	1위	한국
	2위	대만
	3위	스페인

◆남자 체급별 입상자

핀급	1. Lim, Sung-wook	KOR
	2. Enrique Torroella	MEX
	3. Dae Sung Lee Bidhan Lama	USA NEP
플라이급	1. Kang, Chang-mo	KOR
	2. Budi Setiawan	INA
	3. Dicostanzo Geromia Bathily, Younoussé	ITA CIV
밴텀급	1. Yoo, Myung-sik	KOR
	2. Bezch, Nakh	TUR
	3. Nuno Damaso Alfie Dell'orso	SUI AUS
페더급	1. Chian-Hsiang Lee	TPE
	2. Luis Torner	ESP
	3. Elmali, Musrafa Chris Spence	TUR USA
라이트급	1. Yang, Dae-seung	KOR
	2. Jeuis Tortosa	ESP
	3. Steve Capener Georg Strief	USA GER
웰터급	1. Jeong, Kook-Hyun	KOR
	2. John Wright	ESP
	3. Gernhardt Torsten Jay Warwick	GER USA
미들급	1. Lee, Gye-haeng	KOR
	2. Jimenez Francisco	ESP
	3. Hebb Prez Ammar Sbeihi	USA JOR
헤비급	1. Michael Arndt	GER
	2. Jimmy Kim	USA
	3. Medina, Carmelo M. Boukrouh	ESP FRA

◆여자 체급별 입상자

핀급	1. Jang, El-suk	KOR
	2. Monica Torres	MEX
	3. Rosa Moreno Chin Yu Fang	ESP TPE
플라이급	1. Pai Yun Yiao	TPE
	2. Lee, Young	KOR
	3. Ginean Hatte Antonia Cayetano	USA ESP
밴텀급	1. Tennur Yerihsu	TUR
	2. Josefina Lopez	ESP
	3. Margarita Ogarrio Torng Ya Lin	MEX TPE
페더급	1. Kim, So-young	KOR
	2. Kim Sotson	USA
	3. Zuleyha Tan Anne Christensen	TUR DEN
라이트급	1. Lee, Eun-young	KOR
	2. Hsien Feng Lien	TPE
	3. Evanno Elena Navaz	FRA ESP
웰터급	1. Coral Bistuer	ESP
	2. Kim, Jee-sook	KOR
	3. Tessa Gorden Tang Huey Ting	CAN TPE
미들급	1. De Jongh M.	NED
	2. Wang Chih Yu	TPE
	3. Sharon Jewell	USA
헤비급	1. Lynette Love	USA
	2. Liu Yi Ling	TPE
	3. Chang, Yoon-jung Buys A.	KOR NED

세계 태권도연맹 소식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106차 로잔 IOC총회, 집행위

IOC집행위 8월 30일~9월 1일 스위스 로잔서 열려.
106차 총회는 9월 3~6일, 이번 총회에서 사마란치위원장인 IOC 위원장으로 재선. Anita DeFrantz(미국)은 최초의 여성 IOC부위원장인 되었고 김운용 총재는 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이후 1년 만에 IOC집행위원으로 복귀. 200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아테네로 결정. 한편 98년 IOC집행위원회를 9월 14~16일 서울서, 또한 99년도 IOC총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연맹 이금홍 사무총장도 IF대표로 참석.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참가 선수 선발일정 발표

연맹은 2001년 올림픽 태권도 참가선수 선발일정을 결정. 8월 26일 회민국 및 지역연맹에 통보. 이에 따른 99년 태권도 경기일정은,

- 5월: 14회 세계대회 및 7회 여자세계대회
- 7월~8월: 세계선발전(남녀 각 16명씩 선발)
- 9월~10월: 지역선발전(남녀 각 28명씩 선발)
- 아시아, 유럽, 팬암연맹: 각 체급 남자 2명 (1, 2 등) × 4체급 × 3연맹 = 24명
- 아프리카연맹: 각 체급 남자 1명(1등) × 4체급 = 4명
- *여자선수 선발도 이와 같음.

12월 14일~15일(확정된 날짜임): 이미 선발된 팀 참가하여 시드니에서 시범경기
이와 관련 연맹은 각 지역연맹에 내린 지역대회시 열릴 지역연맹 총회에서 지역선발전 개최구 선정을 위한 제안조치를 요청. 연맹은 지역선발전이 연맹 기술대표의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회 국제심판은 연맹이 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경기 - 날짜, 장소 등 변경

시드니 올림픽조직위는 7월 22일 태권도경기 관련

전반적 정보를 보내왔는데 날짜와 장소가 변경되었다. 조직위측은 경기장소가 스포츠전용 시설이라서 선수 및 관계 임원들에게 더 편리할 것이고 경기관람에도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1. 장소: State Sports Centre, Sydney Olympic Park
 2. 날짜 (대회 중 날짜): 9월 27일~30일 4일간 (대회 제 12~15일)
 3. 참가선수: 조직위측 배정-100명(남자 52명, 여자 48명)
 4. 연습장: 연맹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연습장이 선 수준에서 3Km 내에 위치
 5. 올림픽 시범경기: 올림픽시범경기는 경기운영, 장소, 임직원/자원봉사자, 스포츠기술 등을 올림픽방식에 맞춰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연맹의 기술대표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모든 올림픽 태권도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 WTF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날짜: 1999년 12월 14~15일
장소: State Sports Centre, Sydney Olympic Park
체급: 남녀 4체급
경기: 시합당 20분 소요 예상(예선전은 더 소요될 수도 있음)

■세계연맹, 오스트리아 ASL사

경기운영시스템 승인

연맹은 9월 11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자문 회사인 오스트리아의 ASL Electronics사의 경기운영시스템을 승인했다. 따라서 연맹은 앞으로 국제대회시 이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5년간 '96 월드컵, 호주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사용되었고 수개국에 판매되었는데 이번 승인은 그간의 사용결과를 토대로 한 ASL사의 요청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EWS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중우 부총재, 송상근 차장 호주 방문

이중우 부총재와 송상근 차장이 8월 27일 9월 3일 호주 방문, 97년 홍콩세계대회 호주팀 선발전 감독, 방문 중 시드니 올림픽조직위와 태권도경기 논의.

국가협회 소식

우즈벡 공화국

Uzbekistan Taekwondo Association

(회장: Mr. Arkady Kim

사무총장: Mr. Oleg Pyak)

주소: 79, Zhukovsky str.,

Tashkent 700060,

Republic of Uzbekistan

전화: 7 3712 33 8915/ 33 3451 팩스: 7 3712 44 2603

적도기니

적도기니 태권도 협회(FEGTKD)가 적도기니 무술연합(COFEGAMAR/ 회장: Mr. Jose NGUEMA BIYOGO) 7월 5~6일 임시총회에서 COFEGARMAR로부터 독립, FEGTKD 임원명단은

회장: Ignacio NDONG NGUEMA

명예회장: Jose NGUEMA BIYOGO

사무총장: Andres Jorge MBOMIO NSEM ABUA

괌

괌 태권도 협회가 8월 17일 임원선출

회장: Simon C. YSRAEL

서기: Jean (John) COURAUD

새 주소:

Box 6497

Tamuning, Guam 96931

전화: 671 646 1343/ 646 4356

팩스: 671 649 8255

부탄

임관인 사범이 올림픽 솔리대리티 프로그램 일환으로 7월 16일~27일 Thimphu의 태권도장에서 사범, 선수 대상 교습.

코스타리카

박현서 사범이 올림픽 솔리대리티 프로그램 일환으로 San Jose 대학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건물에서 7월 20~26일 태권도 교습.

미얀마

미얀마 태권도 협회(회장: Mr. Zaw Min)의 선수 3명과 전용환 사범이 8월 한국 한체대에서 전지훈련.

캄보디아

선수 4명, 코치 1명이 8월말 한성고에서 전지훈련.

영국

영국 태권도 조정 위원회(의장: Mr. Kevin Homsey)가 새 주소 발표.

전화/팩스번호는 그대로임.

11 Hassocks Hedge, Banbury Lane,
Northampton, England NN4 9QA

캐나다

캐나다 Jean Chretien 수상과 국회의원 Mrs. Marlene Catterall이 이태은 캐나다 협회장의 캐나다 태권도전과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명예단증을 받았다.

터키

Mr. Bayram TIRAS가 협회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9월 1일 서신 발표.

쿠웨이트

쿠웨이트 태권도 협회는 9월 2일 서신에서 경기장이 있는 새 협회건물을 건축 중이라고 발표.



두억시너

〈연재 제9회〉

호로아 글·그림

백산으로 백산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너자를 크게 써넣은 대장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백산에 설치된 호남창의 대장소에서 전봉준은 진주로 진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막료(幕僚=사령관에 직속되어 보좌하는 참모)들과 함께 숙의(熟議=충분히 의논함)하기에 바빴다.

첫번째 고부봉기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 고을에 그치지 않고 전라도 여러 곳의 농민들과 동학교도들이 무기를 들고 군계(郡界=행정구역인 군의 경계)도 넘었으니 조정에서 보기에는 어김없는 반란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줄을 이어 백산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조정은 우리를 속였다. 새로 부임한 고부군수 박원명은 전군수 조병갑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 농사만 짓는다면 봉기에 참가한 죄는 묻지 않는다고 했으나 안해사 이용태는 조병갑 뺨치는 악랄한 행패로 우리를 못살게 굴었으니 이제는 전주(全州)를 함락시키고 서울까지 쳐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판사판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관의 학정(虐政=포악한 정치)에 시달려 죽느니 차라리 목숨을 걸고 세상을 뜰어 고치자〉

〈죽어라 하고 땀 흘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만히 앉아 놀기만 하던 양반지주와 나라가 곡식을 수탈(收奪=빼앗음)해 가버리니 우리는 무얼 먹고 사나?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참고 참아왔던 농민들의 분노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苛斂誅求=조세 때위를 가혹하게 거두어들

여 백성을 못살게 들볶음)가 도화선이 되어 구부봉기로 터졌고 사태수습을 위해 조정이 파견한 안해사 이용태의 만행(蠻行=아만스러운 행위)으로 불에 기름을 퍼부은 듯 활활 타오르며 삼시간에 호남전역에 퍼져나갔다.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횡포한 강적의 무리 구축하고자 함”

무장기포(武長起砲)에서 순화중, 김개남 등 거물들을 제치고 대장으로 추대된 전봉준은 총관령을 맡은 순화중, 김개남 등과 의논한 끝에 격문(檄文=널리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문을 고취시키려고 쓴 글)을 발표해 호남 각지에 보냈다.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본뜻이 결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생(蒼生=세상의 모든 백성)을 도탄(塗炭=새까만 진구렁이에 빠졌다는 뜻)으로 생활이 몹시 어렵거나 비참한 것을 이르는 말)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盤石=넓고 평평한 바위



처럼 아주 믿음직스럽고 든든함) 위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貪虐=탐욕이 많고 포학함)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驅逐=어떤 세력이나 해로운 것을 몰아냄)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 그리고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아전-지방 관아에 달린 하급관원)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지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갑오 3월 일
백산에 있는 호남창의 대장소

창의문에 이어 발표된 동학군의 격문은 그들의 투쟁 대상이 악질관리와 몹쓸 짓으로 돈을 긁어모은 양반과 부자들, 그리고 외래 침략세력임을 뚜렷이 밝히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관리 가운데도 지방의 말단 아전들은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등 널리 농민을 중심으

로 억눌린 계층의 참가를 당부하고 있었다.

영광, 옥구, 무안, 임실, 남원,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담양, 창평, 장성, 능주, 광주, 나주, 보성, 영암, 강진, 홍양, 해남, 곡성, 구례, 순천 등 곳곳에서 이 격문에 호응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백산으로 백산으로 집결했다.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명분과 의욕,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백산에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싱글벙글해?

『아무래도 추월이 저 애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그야 저 애도 나이가 나이니까 정량(情郎=여자의 정든 남)이라고도 생긴 거겠지.』

『그래 듣고보니 그런 것 같애.』
돌을 고여 얽힌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피며 밥을 짓고 있던 여인네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나이런 작부 출신의 추월(秋月)이었다.

무척 고생을 하고 자랐을텐데도 추월이는 타고난 성

품이 끈고 밝아서인지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했고 얌은 미소가 언제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아 말이 많기 마련인 여인네들로부터도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봉의 참가한 농민들의 집결에는 자연 여인네들 수효의 증가도 뒤따랐다.

어린애들의 손을 끌고 남편을 따라 아예 한 집안 식구가 똥똥 백산에 온 순창댁, 가난한 과부 몸이라 미련없이 오막살이를 버리고 동학군을 돕기 위해 남편에서 왔다는 밤나무댁, 아들을 억울하게 관아에서 옥사시킨 것이 한이 맺혀 손자와 함께 전봉준 장군을 찾아온 돌이 할머니, 차마 남에게 말 못할 고난을 슬하에 겪어온 고아소녀 난이 등 소녀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여성들이 백산의 사별한 분위기에 그런대로 부드러움을 풍기고 있었다.

여인네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빨래와 밥짓기 등으로 동학군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여인네들이 모이면 으레 그렇듯이 그들은 하찮은 일이라도 화제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심심함을 달랬다. 저녁밥을 짓던 그들은 추월이가 꼬마 자갈과 분이의 손을 잡고 산책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요즘 추월이의 표정에 일어난 변화를 화제로 삼았다.

『추월이가 정을 줄 만한 사나이라면 누구일까?』

밤나무댁이 고개를 가우뚱한다.

『글쎄 추월이에게 알맞는 상대라면 아무래도 젊은 총각이 아니겠소?』

『과연 창평에서 왔다는 그 잘 생긴 총각인가?』

『창평에서 온 총각? 그 총각이 무얼 잘 생겼어? 꼭 기름통에 빠졌다 나온 기생 오레비처럼 뽀얀뽀얀한 녀석을 그래 추월이가 좋아하겠어?』

『아니면 구례에서 왔다는 체격 좋은 젊은 흠아비일까? 꼭 총각만 좋아하라는 법도 없지 않겠어?』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오르기 시작한 술 앞에 쭈구리고 앉은 여인네들에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화제는 매우 즐거운 심심풀이일 수 밖에 없었다.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이면서 추월이의 표정이 요즘 들어 더욱 밝아지고 용모마저 이쁘진 까닭을 어렵하느라 떠들썩했다.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 마소. 추월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사람 뿐이오』

그때까지 묵묵히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농월이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단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영광에서 기생노릇을 하다가 동학에 입교한 뒤 전봉준 장군이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그를 따라다닌 농월

이의 단호한 말투에 모두 입을 다물고 그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렇게 눈치들이 없소? 내 말을 이상하게는 듣지마소. 추월이는 두역시니 군사를 오빠처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소. 아마 지금은 아무리 잘 생긴 사나이가 나타난다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것이오』

강화도와 영종도를 강습한 일본군함 운양호



농월이의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여인네들은 모두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무리 뛰어난 사나이라 해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추월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군사가 구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나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치 문둥이에게 끌리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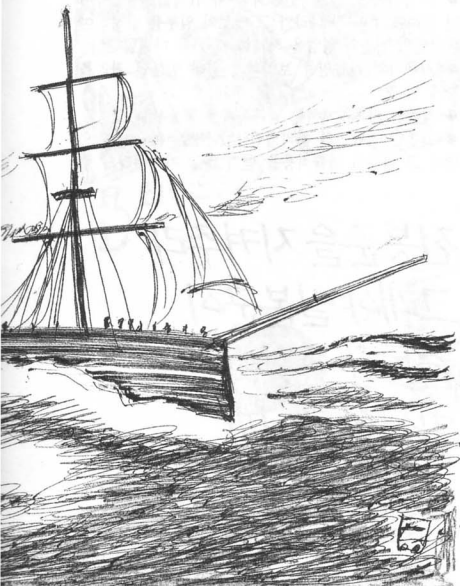
여인네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

었다.

모두들 대변하듯 밤나무대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여자지만 참으로 여자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소. 안그렇소?』

밤나무대의 이 말에 모두 웃음보를 크게 터뜨리면서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웃음소리와 함께 추월이에 대한 호기심도 허공에 날려보냈다.

그러나 농월이만은 추월이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증을 버리지 못했다. 원래 농월이는 모든 사물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납득할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미의 여인이었다.

〈일찍부터 추월이도 군사가 문동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도 군사를 잘 따랐고…… 하지만 추월이의 표정이 요즘 갑자기 더욱 밝

아지고 군사를 바라보는 눈길이 더욱 다정해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필시 무슨 곡절(曲折=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일 게다.〉

분명 추월이는 두역시니에 대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다.

〈그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일본군함, 강화도를 습격하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히데요리(秀頼)를 무찔러 천하를 장악한 도꾸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최고의 총치기관인 도꾸가와 막부(幕府=일본의 가마쿠라시대 이후 무가(武家)정치의 정청(政廳)을 세웠다.

도꾸가와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후 12차례에 걸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이지(明治) 유신이라는 왕정복고(王政復古=나라의 정치체제가 군주정체(正體)로 되돌아가는 일)가 이루어지면서 도꾸가와 막부는 무너지고 일본은 조선을 침략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1875년 5월 일본은 운양호를 비롯한 3척의 군함을 부산항 앞바다에 보내 혼련이라는 구실 아래 함포사격을 강행, 조선반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같은 해 9월 다시 운양호는 서해를 북상해서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이미 일본정부는 조선정부와 「일본선박이 부산항 이외의 항구에 기항할 때는 미리 부산의 초량관(草梁館)을 통해 조선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약조를 맺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화도에 무단 접근한 뒤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이에 반격한다는 구실로 의도적인 분쟁을 일으켰다.

아무런 예고없이 강화도에 접근한 운양호는 보트를 내려 「음유수를 보급받기 위해」라는 거짓 명복아래 수병들을 상륙시키려 했다.

이를 영토침범으로 본 초지진포대(草芝鎭砲臺)의 대포가 잇달아 불을 뿜었다.

그러나 초지진포대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고작 700m 정도 밖에 되지않아 운양호에 닿기 전에 대포알이 바다에 떨어져 물기둥만 일으킬 뿐이었다.

운양호의 함포는 사정거리가 길어 포대를 쏘발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운양호의 함포사격을 받은 포대는 얼마 뒤 침묵하고 말았다.

초지진포대를 박살낸 운양호는 그대로 조용히 철수하지 않고 영종도에 수병을 상륙시켜 영종도 포대를 배후로부터 습격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해군의 공격을 감당 못하고 영종감사 이민덕(李敏德)을 비롯한 조선군은 「겉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뿔뿔이 흩어진 조선군 병사들은 해변으로 도망갔으나 추격해온 일본해군 수병들에 의해 사살당하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순식간에 35명의 조선군 병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편 일본군도 2명의 전사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35명이나 되는 조선군 병사를 죽여놓고도 일본군이 2명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살기가 등등한 일본군은 영종도 포대의 대포 36문과 화승총(火繩銃=불을 붙이는데 쓰는 노끈에 불을 당겨 화약을 터뜨려 쏘던 구식의 총·조총이라고도 함) 130여 자루 빼앗았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일본군은 관아와 민가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 뒤에야 다음날인 9월 21일 운양호를 타고 철수했다.

운양호는 강화도 앞바다를 떠나 1주일 뒤에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에 닿을 때까지 어느 항구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료수가 모자라 강화도에 상륙하려 했다는 구실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틀어남 셈이다.

무서운 일본의 흥계

운양호가 강화도를 강습(強襲=세차게 습격함)한 다음해인 1876년 일본 정부는 엉뚱하게도 조선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은 운양호가 무단으로 조선의 영해를 침범해 조선군 병사 35명을 죽이고 관아와 민가를 약탈해놓고도 이를 덮어둔 채 자기네 병사 가운데 3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니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억지 요구였다.

일본의 진짜 속셈은 배상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개국(開國=외국과 국교를 처음으로 시작함)을 뜻하는 수호조약의 체결이었다.

군인이 태반으로 이루어진 800명이나 되는 일본사절단은 구로다 기요따까(黒田清隆)육군중장 인솔 아래

2월 4일 강화도 앞바다에 닿았다.

막강한 무력을 배경삼은 일본의 엄포에 눌린 조선은 2월 26일 일본과의 수호조약을 맺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병자(丙子)수호조약이다. 강화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강화조약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에게 요구한 중요사항은 크게 다음 7가지였다.

- 부산항 이외에도 2개 항구를 개항할 것.
- 개항지에는 일본상인들의 거류지(居留地=조약이나 관례에 따라 한 나라가 그 영토의 일부를 한정하여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을 허가한 지역)를 마련할 것.
- 거류지의 거류민을 보살피기 위해 일본인 관리를 두게 할 것.
-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일본화폐를 통용시킬 것.
- 일본인 거류민의 치외법권(治外法權=외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적용을 받지 않고 자기나라의 주

전봉준을 지켜주라 그래야 일본군이 출동할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을 인정할 것.

-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수출하는 상품에는 일체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서도 일본의 이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의 거류민의 치외법권 인정 조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번 치외법권을 인정해버리면 거류지 안에서 일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헌(官憲=정부나 관의 법규, 특히 경찰관리를 뜻함)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된다.

이 치외법권 인정 조항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본 관헌에 일본인 범죄자의 처벌에 「판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정을 저지를 우려가 있었다.

조선 정부에게 일본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인



정하지 않은 것도 조선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리고 위의 6가지 항목 말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호조약 첫머리에 실린 「조선은 자주(自主=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의 나라로서 일본국과 평등의 권리를 지닌다」라는 조문이었다.

새삼 조약에 실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이 당연해 보이는 이 조문이 어째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었을까?

이 조문에는 종래부터 내려온 조선과 청나라와의 종속관계(從屬關係=따리어 붙어있는 관계)를 부정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종속관계가 소멸해 버리면 앞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청나라는 나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일본측의 논리였다.

일본은 청나라와의 종속관계가 끊어진 조선을 언젠가는 자기네 속방(屬邦=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서

운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병자수호조약에 마련한 것이다.

전봉준을 도와 주라고?

「허허, 그렇다면 조선사람들이 왜놈이라고 부르는 우리보다 키가 작은 녹두장군(전봉준)을 도와주란 말이 지?」

「그렇소, 서울의 일본공관이 품고 있는 뜻을 오까모 또 씨가 전해 왔소」

「호음, 무쯔 외무대신의 밀명(비밀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오까모도 씨의 말이라면 무쯔 대신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

「아마도 조선정부는 이번 동학란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압하기 위해 우두머리인 전봉준을 암살하려 자객들을 호남에 내려보낼 공산이 크니 전봉준을 지켜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 그래야만 우리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의 군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말이야. 난리가 평정되어 버리면 무슨 핑계로 조선에 출병할 수 있겠나!』

서울의 일본공관과 함께 한국침략의 기지로서 그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초량관이다.

일찍이 왜관(倭館)이라 불리던 부산의 초량관은 1869년 일본정부가 대마도(對馬島)의 영주를 제치고 조선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위해 3명의 관리를 파견하면서 조선반도 침략의 발판이 된다.

그 초량관에서 우찌다 료헤이(開田良平)를 비롯한 낭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봉준을 조선정부의 자격으로부터 지켜주라』는 일본공관의 비밀지령을 놓고 의논하고 있었다.

이 낭인들이 바로 한국과 중국대륙 침략의 선봉노릇을 하는 천우협(天佑俠)의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모두가 낭인이나 검객들이었다.

이들의 당연목표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지도록 꾸미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예에 뛰어난忍者(忍者=일본의 변장술과 기동력이 뛰어난 간첩 및 암살자) 부대를 전봉준 진영 가까이 보내야겠군!』

『그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봉준 자신은 물론 조선정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정체를 숨기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반란의 수괴인 전봉준 편에 섰다고 조선정부에 알려지면 일본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질테니까요!』

『그야 그렇지. 그리고 조선말을 잘하는 장사꾼도 있으면 함께 데려가게!』

『네, 그 임무에 알맞는 자가 있습니다. 줄포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입하던 기무라라는 자가 지금 거류지에 머물고 있으니 그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무라는 그 복면군사 두역시니와도 만난 적이 있답니다!』

『뭘! 두역시니와 만난 적이 있다고? 그것 안성맞춤의 인물이로군. 그래 그 자를 데리고 가게!』

기무라란 일본상인은 1893년 가을 줄포항구에서 조선인 하역부를 못살게 굴다가 몸집 큰 도사견과 함께 두역시니에게 혼쭐이 난 바로 그 기무라다.

갑자마패가 나타났다!

『역시 민비가 갑자대를 출동시켰군!』
손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 무거운 신음이 복면군사 두역시니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

『그렇소 두령, 그 수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자 변장한 갑자대원들이 흩어져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역시니 앞에서 역시 수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면무사는 전주감영에 잠입하고 있는 짓궂개였다.

진돗개가 전주를 빠져나와 한숨도 쉬지않고 두역시



니에게 달려온 것은 매우 중대한 정보가 수원의 살모사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다.

며칠전 수원의 살모사가 날려보낸 전서구(傳書鳩=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시킨 비둘기로 그 발목에 통신문이 담긴 통을 달아 목적지로 날려보낸다)가 전주감영 뒤안 큰 나무에 진돗개가 마련해둔 비둘기집으로 날아들었다.

그 비둘기가 지니고 온 통신문에 따르면 수원성 밖 파발(撥發=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해 역마를 갈아타도록 마련한 곳)에 잠입해 있던 살모사가 갑자마패를 지닌 사나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살모사가 보낸 통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돗개 잘 있는가? 급히 두령(두역시니)에게 알려 드려야 할 일이 생겼네. 자네도 알고 있다시피 나는 수원성 밖 파발에 잠입꾼으로 위장해 들어와 있네. 어



제 저저 서울쪽에 서 말을 달려온 스님 차림의 사나이가 파발에 들어오더니 갑자마패를 내보이면서 조속히 기운 좋은 말을 대령하라는 거야. 진짜 갑자마패임에 틀림없었네. 진돗개,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네도 알겠지.

갑자대가 서울을 떠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세. 스님 차림의 사나이 뿐 아닐세. 그 뒤에도 두 사람이

더 갑자마패를 내보이고 말을 갈아탄 뒤 남으로 내려 갔네. 그리고 세사람 모두 칼, 철퇴, 창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네.

지금 남쪽에 갑자부대가 내려가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호남의 동학군 봉기 말고 무슨 일이 따로 있겠는가? 아마 심중팔구 그들은 전봉준 장군과 두령을 없애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 것일 게야. 이 글을 받는데로 바로 말을 달려 두령에게 알려주기 바라네.

자네도 정체를 듣키지 말고 건강히 지내고 있겠. 언젠가 함께 싸울 날이 있겠지. 이만 줄이네. 살모사」

웬만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은 두역시니가 팔짱을 끼더니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다.

〈민비 직속인 암살집단 갑자대가 남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들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 무예의 고수가 아닌가. 지금까지 마주쳐왔던 허수아비 군졸들과는 전혀 다른 강적들이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내려와 한 곳에서 집결한 뒤 조직적으로 전봉준 장군의 본영을 습격한다면?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그들을 몇 사람이나 막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술한 죽을 고비를 넘겨 오긴 했으나 이번처럼 긴박한 위기감을 두역시니는 일찌기 느껴본 적이 없다.

두역시니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야 이미 내놓은지 오래지만 몸집은 작으면서도 뜻이 큰 사나이 전봉준 장군의 꿈은 실현시켜주고 싶었다.

『허허! 이거 정말 난감하게 됐군. 갑자부대가 내려오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전봉준 장군과 내가 커져 가는 무척 커진 거야.』

비로소 여유를 찾은 북면군사 두역시니의 밝은 모습에 진돗개도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두령. 그러면 소생은 다시 전주감영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하이. 쉬었다 가라고 할 수 없을만치 지금의 상황은 긴박하구먼. 잠깐만 기다리게.』

두역시니는 장막 한구석의 캐를 열고 엽전을 한꾸러미 꺼내 진돗개에게 던져주었다.

엽전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은 진돗개는 절을 꾸벅하더니 장막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두역시니는 갑자부대의 남하는 알고 있었으나 부산을 떠나 호남으로 향하고 있는 일본의 닌자부대의 움직임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

태권도 산책



홍종수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가원 부위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든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자라
나.

그러나 지난날 미개했던 일본에 선진문화와 학문을 전해
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도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는 대표적인 인물 이
라 할 수 있겠다.

仁은 「어질 인」이다. 어질고 착한 사람을 인자(仁者)라
부른다.

왕인 박사는 이름 그대로 어진 학자로서 높은 학덕과 기
품있는 행동으로서 둘째 사람달로부터 추앙을 받은 인물
이다.

왕인 박사는 지금의 전남 영암평에서 태어났다. 한반도
서남단의 명산인 월출산을 등에 업고 영산강을 바라보는
죽순봉 아래 자리잡은 성기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 일대가 왕인 박사가 학문을 닦던 무대였다. 그 곳에는
책굴이라고 10명 가량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동굴이
있다.

이 책굴에서 왕인 박사는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쳤
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도 그 동굴 옆에는 여러 제자들이 왕인박사를 추모
하기 위해 세운 석상이 서 있다.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왜(倭=일본)는 아직 학문과 문화가 매우 뒤떨어져
있었으나 바다 건너 백제는 일찍부터 해양국가로서 중국
등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류가 활발히 펼쳐져
학문과 문화가 일본에 건주어 훨씬 발달돼 있었다.

하지만 백제는 북으로 고구려, 동으로 신라와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군사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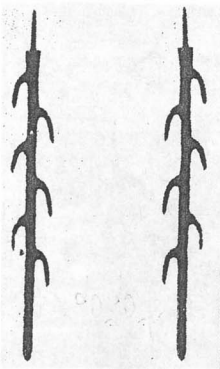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백제와 일본사

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선진국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
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군사협력도 이루어지
게 된다.

백제의 뛰어난 임금이었던 근초고왕은 왜왕에게 칠지도
(七支刀=일본 이사가와신사 소장)를 보낸 일이 있으며
그 뒤에도 사신인 아직지(阿直岐)를 통해 말과 검(劍)을
전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학문이나 문화 뿐 아니라 군
사적으로나 무술(武術) 면에서도 백제는 일본에 많은 영
향을 끼친 것이 확실시 된다.

기마(騎馬)민족으로서 무(武)를 숭상하고 해양국가로서

어질고 착한 사람 왕인 박사를 왕자의 스승으로



▲일본 奈良의 석상 신관에는 七
支刀라는 신검이 전해지고 있다.
길이 75cm 가량의 검신 앞 뒤에
金象嵌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것에 의하면 4세기 후반전 백
제왕으로부터 倭王에게 보내졌
음을 알 수 있다.

중국대륙에 식민지
도 개척해 두었던 백
제는 외교관이자 학
자인 아직지로 하여
금 일본왕실에 한학
(漢學), 역법(曆法),
음양오행사상(陰陽
五行思想)을 가르치
게 했다.

왜의 임금인 응신왕
(應身王)은 백제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힘쓰면서
아직지에게 백제의
학덕이 높은 학자를
초청하고 싶으니 천
거해 주도록 당부했
다.

아직지는 서슴없이
왕인 박사를 천거하
면서 자신보다 몇 배
나 훌륭한 학자라고
말했더니 응신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왕인 박사를 왕자의 사부(스승)로서 초
청했다. 그것이 서기 405년의 일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왕인박사는 일본의 왕자를 비롯한 왕족
들에게 오경(五經=易, 詩, 書, 禮, 春秋)을 강의하고 충효

인의예(忠孝仁義禮)의 덕목을 가르쳤다.

왜인들은 왕인 박사의 가르침에 깊이 감복(感服=감동하여 진심으로 복종함)하고 박사의 높은 학덕을 존경했다.

왕인 박사의 가르침은 백제문화의 정수(精髓=뺏속에 있는 골에서 나온 말로 사물의 본질을 이룬 가장 뛰어난 부분을 뜻함)를 일본 문화에 이어줌으로써 그 뒤 일본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백제의 선진기술인들이 대거 일본에 진출했다.

옷감을 짜는 직공(織工), 대장쟁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陶工), 가죽공예품을 만드는 안공(鞍工), 그림 그리는 화공(畫工) 등이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활약하면서

우리의 승무정신 백제통해 일본에

왜인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또 백제의 명의(名醫=이름난 의사)인 덕래(德來)는 난파(難破=오사카)에 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니 왜인들은 덕래를 난파약사(難破藥師)라 부르며 높이 받들었다.

그리고보면 백제는 사실상 일본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는 왕인박사에 관한 사료(史料=역사적 자료)



▲일본으로 건너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제자들이 조각 왕인박사상(王仁博士像)

仁 (어질 인)

사람의 옆모습

숫자의 2의 모습으로 두사람을 나타냄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염려해 준다는 것으로부터 어질고 정이 깊은 마음을 나타냄.

가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오허려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 왕인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왕인 박사의 자손들은 대대로 일본에 살면서 왕실의 사부노릇을 맡았다.

왕인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백제는 많은 학자들과 불승(佛僧=불교의 중) 그리고 불경(佛經=불교의 경전)을 일본에 보냈다.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문화재인 법륭사(法隆寺)라는 절은 백제사람들에 의해 지어졌고 백제의 중 관루(觀闕)은 왜인들에게 역학(曆學), 천문지리(天文地理), 둔갑술(遁甲術=일본의忍者들이 쓰는 닌쥬츠忍術)의 원류 등을 전해주었다.

일본의 조정은 관록에게 34명의 장정을 맡겨 교육을 부탁했다.

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도 당시 미개했던 나라 일본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써 일본의 문화발전을 도의주었다.

오늘날 일부 일본사람들 가운데는 일본문화에 끼친 왕인 박사의 공적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가소(可笑=갈지 않아서 우습다)로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문화를 놓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나친 우월감을 갖는 것도 바람직치 않은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백제가 일본에 칠지도, 말, 검 등을 보낸 사실은 우리 무도계가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고대 우리 민족의 승무(崇武)정신과 무예의 원류가 일본인들에게 전해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고 나는 미루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챔피언의

특기

좀 봅시다



▲아직도 능률한 나래차기의
실질적 창시자 한재구씨(36세)

「나래차기의 달인」 한재구의 특기 공개

이번 호에도 지난 호에 이어 한재구의 또다른 특기를 소개한다.

그의 특기는 물론 나래차기와 원발 돌려차기 공격들이지만 그를 일반인에게까지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뒤후리기”이다.

뒤후리기는 얼핏 보기에 누구나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정확히

가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이것을 이용해 86년 아시안게임 페더급 결승에서 한재구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를 일격에 고목처럼 쓰러뜨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한재구의 특기 시리즈를 끝내게 되므로 특별히 그의 뒤후리기를 상세히 조망해 보았다.

뒷발 회전거리 길어 어려워 선제공격으로 쓰기보다 반격기술로

기술개요

뒤후리기는 주로 상대방의 뒷발 앞돌려차기, 발붙여차기, 빠른걸음 앞돌려차기 또는 드물게 360° 회전 앞돌려차기에 대한 반격으로 사용된다.

뒤후리기는 상대에게 순간적이나마 등을 보이게되고 뒷발의 회전 거리가 뒷차기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스피드 면에서의 효율성을 극히 증시하는 일급 선수들 사이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기술이며 같은 상황이

라면 대개는 뒷발의 회전거리가 조금 짧고 주로 몸통을 노리는 뒷차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뒤후리기의 경우는 일단 정확한 타이밍에 적중되면 상대에 커다란 타격을 주어 높은 KO율을 나타내는 기술 중 하나다.

대개 반격기술로 쓰이며 선수를 치는 공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거에는 중단 뒤후리기로 옆구리를 반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드물다.

.....

뒤후리기의 비결

.....

한재구의 뒤후리기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후리는 뒷발이 돌아가는 각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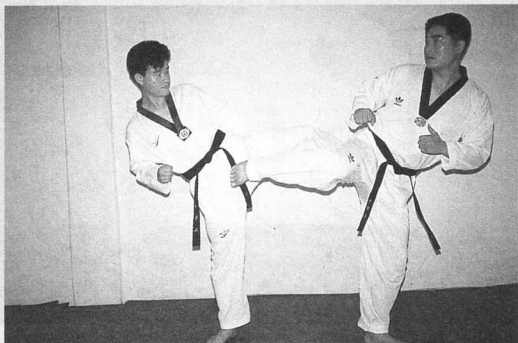
사진에서 보듯 후리는 뒷발의 각도가 거의 수평에 가깝다.

요즈음의 뒤후리기는 스피드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무릎의 각도를 수평으로 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반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발차기는 상대의 타이밍을 아주 정확히 잡지 않는 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한재구처럼 후리는 뒷발을 수평으로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상대적으로 넓

어져 타이밍에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상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상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는 수평각도의 뒤후리기(무릎의 각도를 주시하기 바람).

잊을 수 없는 스승- 정만수 교수

.....

선수생활을 회고하면, 한재구는 가장 먼저 칭주대의 정만수 교수를 떠올린다.

충청북도 태권도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정 교수는 한재구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중고교 시절부터 그를 발굴, 지속적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분.

몹시 엄한 규율로 그를 지도해 지금도 생각만 하면 경외감과 두려움이 든다고.

여자친구, 술, 담배 금지는 물론 교내에서 트레이닝복 또는 도복 이외는 착용을 금지하였고 1년내 내 방향도 없이 훈련을 시켜 방향 중에 노는 일반 학생들이 가장 부러웠다.

체중감량 실패 때 맛을 매가 두려워 감량을 위해

두터운 트레이닝복을 입고 도로변을 뒀 때면 차라리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감람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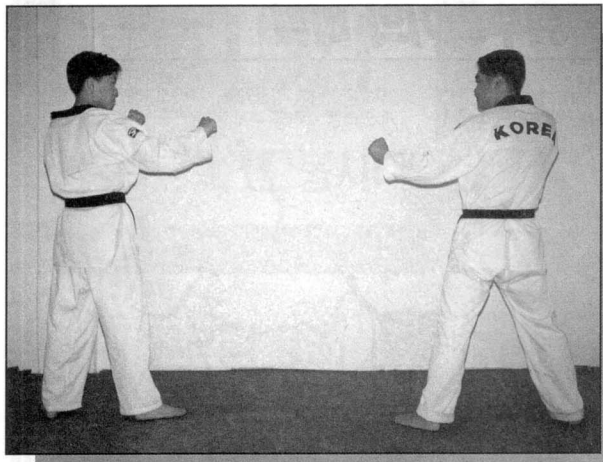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고생 끝에 큰 대회에서 우승 후 맛보는 환희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교수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받았던 것은 자신에게겐 최대의 영광이었다고 회고한다.

사비를 털어 자식같은 제자들을 키우느라 정작 본인은 마흔이 다 되어서야 결혼했던 정교수는 이동준, 마상현, 지용석, 여성기 등 이름만 대면 태권도계의 누구나 알아주는 쟁쟁한 선수들을 키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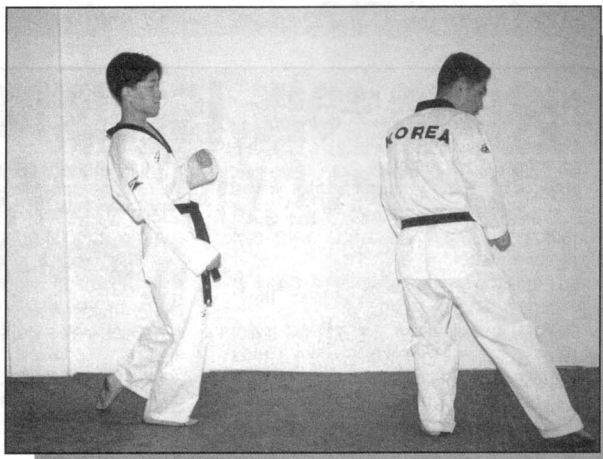
당시 신처럼 엄격한 존재인 "스승으로부터의 인정"이야말로 오늘의 한재구를 있게 한 원동력 이었던 셈.

챔피언의 특기

● 뒤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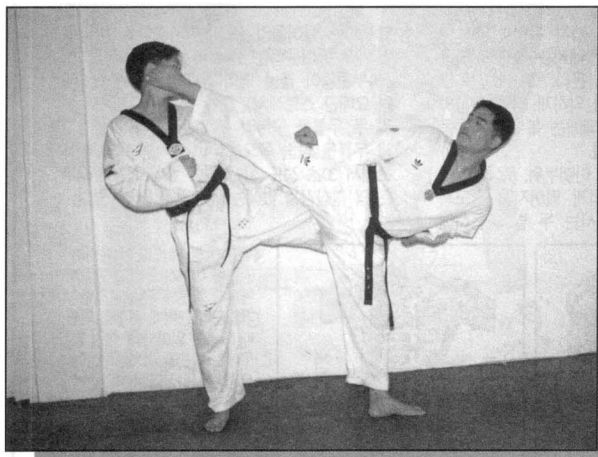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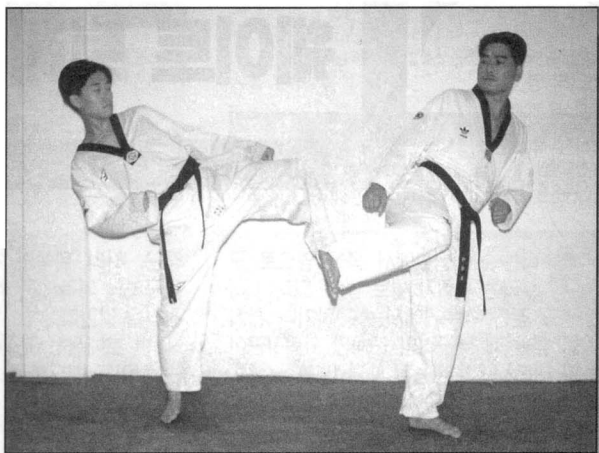


1.
준비자세
이때 이미 한재구(오른쪽)는
상대가 왼발 뒷발앞돌려차
기를 처리라 예상하고 뒤후
리기로 반격하기를 마음 속
으로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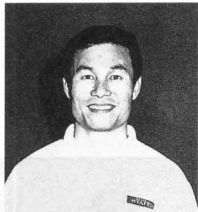


2.
상대의 뒷발 왼발앞돌려차
기가 시작되자마자 한재구
는 기다렸다는 듯이 뒤후
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상대를 시선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겹눈질을 통해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3. 반격 개시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상대의 앞돌려차기가 중간거리에서 왔을 때 이미 거의 같은 거리에 뒤후리기가 있다. 축이 되는 앞발을 힘있게 빨리 틀었기 때문에 이같은 스피드가 나올 수 있다.



4. 상대의 돌려차기 공격이 완성되기도 전에 뒤후리기가 상대의 턱에 직렬하게 된다. 상대가 몸통을 전방으로 많이 가져올수록 상대는 더 큰 타격을 입는다. 후리는 뒷발이 완전히 퍼지는 것은 상대의 턱을 때리는 순간이어야 한다. 다리를 퍼는 것과 허리를 돌리는 타이밍이 일치해야 한다.



지도: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을 옆으로 구부리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나 태권도 같은 격투기에서는 옆차기나 펀치를 뺄 때 옆구리의 근육인 외복사근이나 내복사근이 사용될 때가 많다. 허리힘이란 것은 배의 앞쪽 근육인 복

직근, 허리 뒤쪽의 척추기립근, 그리고 옆구리의 외복사근, 내복사근의 종합적인 근력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옆구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사이드 벤드와 사이드 크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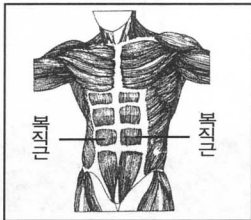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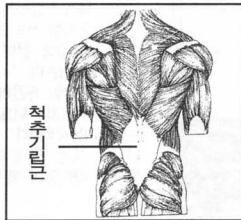
요통 이 있는 경우의 복근운동

요통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보통은 복부근육의 약화 내지는 척추 기립근과의 근력의 불균형에서 온다. 즉 허리근육보다 복부근육이 지나치게 약하게 되면 요통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복부근육 운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복부운동을 할 때 척추 아랫부위, 즉 허리 뒷부분이 바닥에서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발을 동시에

위쪽으로 들어올리기보다는 한 발을 바닥에 댄 채로 들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부운동이 끝날 때마다 아래허리의 스트레칭(요배근 스트레치), 즉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두 무릎을 구부려 두 손을 정강이에 대고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15초에서 30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요추(허리부분)의 긴장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복근과 척추기립근의 근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때 예컨대 복근의 근력이 척추기립근의 근력에 견주어 약할 때 요통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복근을 강화해주어야 요통이 사라진다.

사이드 벤드

SIDE BEND

자세

한 손에 알맞는 무게(5 - 10Kg)의 아령을 쥐고 두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서서 반대쪽 한 손은 머리 뒤쪽에 손바닥을 갖다댄다.

이 때 아령을 왼 팔은 곧게 아래로 내려뜨리고 두 무릎은 살짝 구부린다.

동작: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상체만을 아령을 왼 팔 쪽으로 천천히 약 30 - 45도 정도 구부린다. 이

때 엉덩이 부분은 가능한 한 움직여서는 안되며 아령은 넓적다리 옆부분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한다.

다시 아령을 넓적다리 옆부분을 따라 끌어올리며 상체를 원위치로 가져온다.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며 아령을 잡은 쪽으로 상체를 구부리며 입으로 내뿜으며 상체를 원위치로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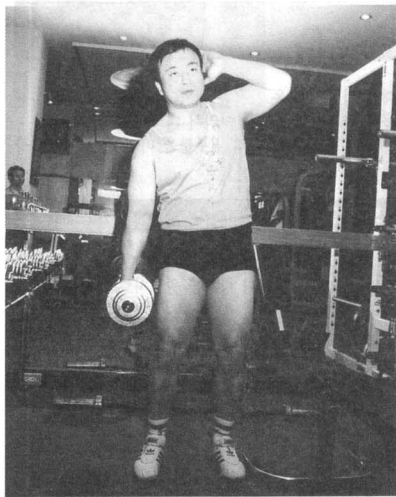
반복회수

한쪽으로 20번 내지 30번 정도 실시한 뒤 팔을 바꿔서 다른 손으로 아령을 쥐고 아령을 잡았던 손은 머리 뒤로 대고서 같은 회수의 동작을 반복한다.

주의점

항상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져서는 안되며 시선은 정면을 응시한다. 무릎은 약 5도 내지 10도 정도 구부리며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양 옆으로 구부리면서 운동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옆구리의 근육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 즉 옆구리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상체를 구부리고 원래 위치로 오게끔해야 한다.





용용동작

이 운동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아령을 두 손에 쥐고서 실시하거나 아령을 쥐지 않고 두 손을 머리 뒤에 대고서 실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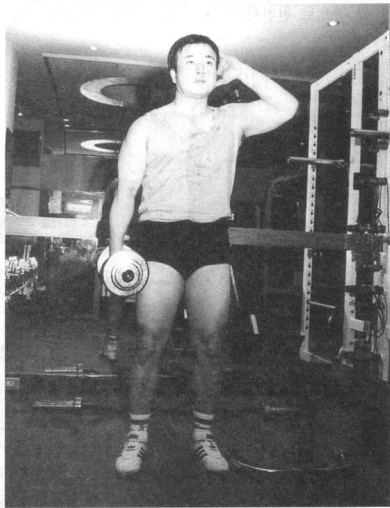
발달시키는 동작

- 상체를 트위스트하면서 날리는 편지력의 강화와 키 동작의 파괴력의 증강.

- 상체를 옆으로 구부린 동작에서의 안정성 발달.
-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릴 때의 순발력이나 스피드의 증진.

발달근육

- 복직근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척추 기립근



사이드 크런치

SIDE CRUNCH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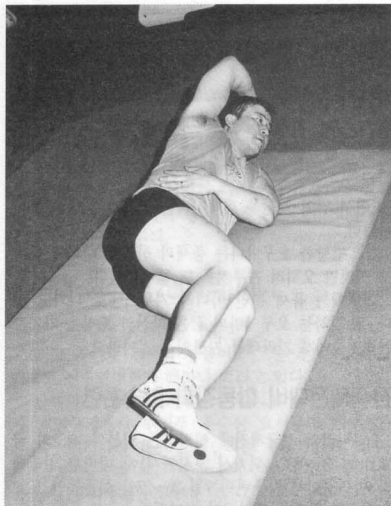
- 바닥이나 매트에 옆으로 누워서 두 다리를 45도 가량 구부린다.
- 아래쪽에 있는 팔을 들어올려서 손바닥으로 반대편 옆구리에 갖다 대도록 한다.
- 위쪽에 있는 팔의 손은 머리를 지탱하도록 머리 윗

부분에 갖다 댄다.

- 이 때 상체와 머리는 일직선상에 있도록 한다.

동작

- 어깨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도록 상체를 들어올려서 위쪽 팔의 팔꿈치가 엉덩이 쪽을 향해서 상체가



구부러지도록 한다.

- 순간적으로 상체가 최대한 옆으로 구부러졌을 때 멈췄다가 다시 원위치로 천천히 돌아온다.

호흡

입으로 내쉬며 상체를 위쪽으로 들어올렸다가 코로 들이마시며 원위치로 돌아온다.

반복회수

보통 15번 내지 25번 정도가 바람직하나 복사근의 최대 수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실시한다.

주의점

- 시선은 항상 정면을 향하도록 한다.
- 상처와 머리는 항상 수평선상에서 움직이도록 한다.
- 머리,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상에

서 움직이도록 한다.

용용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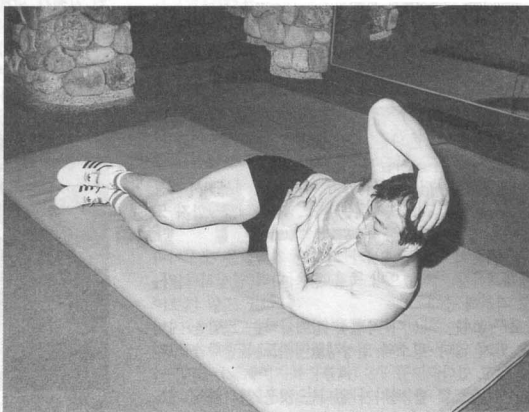
- 벤치에 옆으로 누워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발을 잡도록 한 다음 실시하면 보다 큰 운동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 바닥에서 상체를 옆으로 일으킬 때 뒤쪽 다리를 들어올려 무릎과 팔꿈치가 닿게끔하면 복사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다.

발달시키는 동작

- 편치력의 강화
- 킥 동작의 파워 증진
-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릴 때 순발력이나 스피드의 증진

발달근육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복직근
- 척추 기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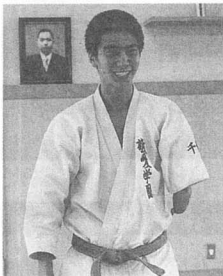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가라데 KARATE

외팔이 가라데 소년의 꿈

내 도장에서 어린이들 지도

지난 봄의 일본 고교선발 가라데대회와 여름의 전국 고교 가라데대회 남자 개인품새에 지바(千葉)현의 대표선수로 출전한 오쿠야마 다이스케(게이아이학원 고교 2년)는 왼팔이 없는 소년이다.



▲밝고 예의바른 가라데소년 오쿠야마는 장애자들의 거울이다.

초등학교 1년 때부터 친척인 형으로부터 가라데를 배우라는 권유를 받은 오쿠야마는 집 근처의 와도류(和道流)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뒤 눈부시게 실력이 향상된 오쿠야마는 중학에 들어가자 학교의 클럽활동으로는 축구에 맘을 몰리면서도 꾸준히 도장에 다녔다.

오쿠야마가 몸담고 있는 게이아이학원 고등학교 가라테부는 총원인이 12명으로 주장이 따로 없고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을 지는다는 뜻으로 최상급생이 돌아가면서 주장의 일을 맡아보고 있다.

3년생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때로 오쿠야마가 리더로서 훈련을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아침은 8시부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6시 45분에 나서야 되고 방과후에는 하오 4시부터 7시까지 또 훈련을 갖는다.

집에 돌아오면 밤 8시가 되지만 가족들은 오쿠야마에게 『이왕 시작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준다.

오쿠야마는 자신이 특별히 장애자라는 느낌을 지니고 있지 않다. 평소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 팔 하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남이 자신을 장애자라는 눈으로 보면 기분이나쁘다.

밝고 명랑한 오쿠야마는 품새의 선수로 대회에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겨루기를 더 좋아하는단다.

『내년에는 품새 뿐만 아니라 겨루기에도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오쿠야마의 꿈은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가라테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전국체전대비 합동강화 합숙훈련

우리나라의 전국체전에 해당하는 일본의 제52회 국제(10월 26~28일 히가시 오사카시)에 대비한 가라테의 합동강화 합숙훈련이 7월 26~27일 이틀동안 도쿄 농업대학 가라테 도장에서 치러졌다.

도쿄도 가라테도연맹이 주최한 이 훈련에는 도쿄도를 비롯 오사카, 교토, 아이찌, 가나가와와 니이가타, 군마, 야마나시, 후쿠시마 등 각 현 가라테도 연맹의 강화선수들이 모였다.

임원 50명, 선수 160명이 참가한 이 훈련의 내용은 개인 겨루기, 단체 겨루기의 훈련경기가 주를 이루어 한사람이 약 10~20게임을 소화하는 하드 스케줄이었다.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느슨하게 치르거나 질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국체전의 본경기에서 자신을 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한다.



▲가을의 전국체전에 대비, 합동강화 합숙훈련을 치르는 일본의 가라테 선수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이 함숙은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도쿄 도와 야마나시현만으로 시작했으나 그 뒤 각 현에 참가를 권유해 올해에는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가라데도 연맹이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체전의 전초전이라고는 하나 여기서 이겨도 전국체전서 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역시 훈련경기와 실제경기는 경기장의 분위기가 다르다. 실제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배짱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 같다』라고 주취 관계자는 말한다.

자위대 챔피언 2연패의 미녀

일본의 군대를 자위대라 부른다.

그리고 자위대 전체를 통틀어 치르는 전 자위대 가라데도 선수권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전 자위대 가라데도 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품세에서 연거푸 우승한 요시무라 마끼(21) 선수는 우리나라 육군에 해당하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스미 주둔지 제1시설단 본부부대 서무계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자위관이다.

가라데는 초등학교 6년 때 4살 아래인 남동생이 다니는 도장에 견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했다.

고교시절에는 3연속 전국고교 대회에 출전했으며 전국체전에도 소년 여자품세에 3년 연거푸 고마모토현 대표로 참가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자위관이었던 관계도 있고 해서 자신도 여성자위관의 길을 택했다.

입대 후 나가사키의 주둔지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아사카스미에 배속돼 주둔지 가라데도부에서 매일 땀을 흘리고 있다.

자위대에 입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체육하고가 있



◀전자위대 가라데도 선수권 대회 여자개인 품세 2연패의 요시무라 마끼.

는 아사카스미 주둔지에서 가라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또류의 품세를 장기로 삼은 요시무라 마끼는 끝내 지난해와 올해의 전 자위대 타이틀을 연거푸 차지했다.

평소에는 여성자위관 숙소의 3인실에서 기거하고 6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 취침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

훈련은 주 6일이지만 일요일도 가라데 관계의 일로 빼앗길 때가 많다고.

휴일에는 시모기따자와의 헌옷가게를 기웃거리지만 군복계통의 옷은 거들떠 보지 않는단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복싱 BOXING

34전 31승 마틴, 우먼 스타로

여자 프로복싱 미국서 뿌리 내릴듯

여자 프로복싱이 미국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남자복싱처럼 통활단체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지난 4월에 설립된 IFBA(국제여성복싱협회)의 잭키 카렌 회장은 말한다.

남자 프로복싱의 경우 현재 8개나 되는 국제조직이

난립하고 있지만 여자 프로복싱은 아직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IFBA 말고는 플로리다를 본거지로 삼고 있는 WIBF(여자국제복싱연맹)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IWBA(국제여자복싱협회) 2개 뿐이다.

이 3개의 국제조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지 않지만 남자의 국제조직인 WBC(세계권투평의회)로부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 킥 프로모터와 150만 달러로 3년 계약을 맺은 여자 프로복서 크리스티 마틴은 WBC가 인정하는 여자 라이트급 챔피언이다.

터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여성복서 크리스티 마틴도 있다.

마틴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홀리필드와 타이슨의 대결에 앞선 오픈 게임에 출전, 베사니 페인을 1회 KO로 물리치는 등 인기가 꽤 높다.

WBC가 마틴을 여자 라이트급의 챔피언으로 인정한 배경은 프로모터 돈 킹의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이라

는 이야기가 있으나 돈 킹과 150만 달러로 3년 계약을 맺은 마틴은 여자 프로복서들의 선망의 과녁이 되고 있다.

마틴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터프한 여성을 뽑는 콘테스트에 출전, 1천 달러의 우승 상금을 차지한 뒤 대학을 졸업하자 89년에 여자 프로복서의 길을 택했다.

마틴은 6년전 현재의 매니저이자 남편인 짐과 알게 되어 1년 뒤 결혼, 현재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살고 있다.

주로 남자선수들과 스파링을 펼치고 있는 마틴은 『여성복싱은 복싱에 알맞지 않다고 여겨왔던 나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남편인 짐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28살인 마틴은 97년을 여자복서로서 중요한 매듭을 지어야 할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싱은 매우 가혹한 스포츠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물러날 때를 잘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갖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퇴를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를 끝으로 은퇴할 지도 모릅니다』라고 마틴은 말한다.

마틴의 전적은 통산 34전 31승(25KO) 1무1패다.

두 차례의 격돌에서 서로 1승 1패를 기록한 안드레아 디선과의 세번째 경기도 추진되고 있고, 최근 디선을 꺾은 카시 콜린스와의 대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도 KENDO

사이따마현 대표팀 2연패 이룩

14회나 거듭한 가정부인 검도대회

일본은 검도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할 만치 가정부인의 전국검도대회가 있다.

8월 5일 도쿄의 일본 부도칸(武道館)에서 치러진 제 14회 전국가정부인 검도대회에서 사이따마현 대표팀이 어렵사리 2연패를 이룩했다.

사이따마현은 오이따와 3-2의 접전 끝에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우승을 차지한 사이따마현의 가정주부대표 검도팀 멤버들이 대장 이토(가운데)를 둘러싸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전국에서 48개 지역 대표팀이 출전했으니 일본의 가정부인 검도열이 얼마나 뜨거울지 짐작 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요즘 청소년의 검도인구가 뚜렷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정부인 검도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처음에 창설될 때만 해도 「기껏해야 아줌마 검도대회」라고 가볍게 보는 검도관계자도 적지 않았으나 14회의 나이테를 거듭하는 동안 불품있고 관심있는 대회로 발전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체전에도 성년 여자부가 새로 생기는 등 가정부인 검도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다.

일본 전국고교 검도 파란

일본의 제44회 전국고교검도대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교토 부립체육관에서 치러져 남자단체는 다카노와, 여자단체는 다카찌호가 각각 제패했으며 남자가

인은 오즈노, 여자가인은 후쿠나가 각각 왕좌에 올랐다.

이번 대회 남자단체전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개인전 우승자 오즈노



▲여자개인전 우승자 후쿠나가

검도가 강한 규슈(九州)세가 4강에 단 1개교만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규슈세가 4강에 1개교 밖에 진출 못한 것은 지난 92년 이래 5년만의 일이었다.

그 92년대회에서 2위에 파고들었던 도쿄의 다카노와가 결승에서 리즈메이강우지를 물리쳐 첫 우승의 영



▲남자 단체전 결승 대결전에서 대결하는 다카노와의 이시이(왼쪽)와 니즈메이강우지의 요시다. 이시이의 승리로 다카노와에게 패권이 돌아갔다.

광을 안았다.

여자단체전에는 막강 아소를 다카찌호가 역전승을 차지했다.

남자개인전 우승자인 오즈노(세이다지교 3년)는 『선생님이 즐기면서 경기를 치러 보라고 말씀하셔서 부담없이 치렀습니다. 개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리라고 미리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여깁니다.』라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여자개인전 우승자 후쿠나가(아소고교 3년)는 『경기 중에는 무의식 중에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선생님은 단체전에서 진 아유미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승에서의 승리는 정신력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제가 차지한 우승은 우연입니다.』라고 말했다.

유도 JUDO

알려져 있지 않는 유도강국 북한

각 학교, 지역, 공장별로 클럽 있어

최근 일본의 유도전문월간지 「근대유도」(8월호)가 북한 유도를 특집 보도했다.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

다.

북한의 유도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여자 48kg급에 금메달 획득이 확실하다고 일컬어졌던 일본의 다무라 료코를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조총련계 재일교포 현창귀씨가 실질적으로 북한유도를 대표해서 국제무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권, 올림픽 등에서는 단편적으로 몇가지 뉴스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 유도의 모든 것을 알 길은 없었다.

이번에 북한의 유도를 전하는 데 가장 적임이라는 현창귀(玄昌貴)씨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씨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도협회 상무위원, 재일본 조선인유도협회 이사장, 동아시아 유도연맹 재무총장, UF(국제유도연맹) A급 심판이라는 요직에 있다.

(편집자주 = 현창귀씨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다.)

▲ 북한의 유도인구는 얼마나 되나?

현= 뚜렷이는 알 수 없습니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몇천명 정도가 아닐까요.

▲ 선수는 학생이 많습니까?

현= 유도는 학교체육의 교과 가운데 하나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유도클럽이 있습니다. 학교말고도 지역클럽, 공장클럽이 있습

니다. 현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모두 학생입니다.

DPR 코리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우 가장 경기인구가 많고 인기 있는 것이 축구, 다음이 탁구, 복싱 등입니다.

유도는 계순희의 금메달 획득으로 요즘 조금씩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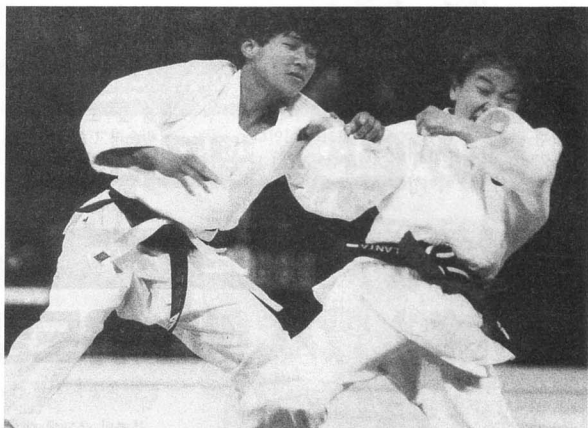
1960년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소위 북송교포) 가운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유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 무도전문학교에서 배운 고태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오랫동안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유도는 말하자면 적국의 국기이니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죠. 한마디로 유도의 이미지는 나빴습니다.

▲ 유도의 나쁜 이미지가 개선된 계기는?

현 = 72년 뮌헨 올림픽 남자 경량급에서 김영희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따면서 각광을 조금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36년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영웅 다무라 료코(오른쪽)와 대결하는 북한의 계순희.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 DPR 코리아 유도의 특징이 있습니까?

현=조선씨름 등 갖가지 무술이 전통으로 남아 있는 데다 소련의 삼보 영향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유도과 삼보적인 것을 믹스한 것이 DPR 코리아의 유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올해의 파리 세계선수권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전망은?

현=두 대회 모두 출전할 방침으로 국내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 국가의 유도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중앙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조선유도협회가 있습니다. 유도협회 아래 각종 유도협회나 유도클럽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DPR 코리아 유도협회가 있고, 그 아래 평양시 유도협회나 조선체육대 유도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 · 주니어 나눠 국가대표팀 운영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큰 국제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연금이나 일급수 등의 포상금이 당연히 나왔습니다만 DPR 코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연금제도, 그리고 포상금제도도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올리면 표창하면서 기념품을 부상으로 줄 때는 있습니다. 상은 국가체육위원회가 주는 명예적인 것입니다.

▲ 선수의 강화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시니어와 주니어로 나누어 우수한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들어갑니다. DPR 코리아의 경우 유도만 하면 된다는 풍조는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역시 첫째로 학업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클럽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내 주요 대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큰 대회는 3개가 있습니다. 2월의 백두산컵, 4월의 만경대컵, 9월의 전국선수권대회입니다.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방식으로 치릅니다. 하루에 남녀 각 1개 체급씩 결승을 갖습니다.

▲ 출전선수는?

현=한 체급에 40명 정도. 무거운 체급은 남녀 모두



▲일본의 「근대유도」(8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북한유도의 실상 - 사진은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의 계순희.

출전선수가 적습니다. 특히 여자는 72kg 이상급이 없습니다.

▲ 국가대표팀의 합숙강화훈련은?

현=기본적으로 합숙강화훈련은 없습니다. 단지 여름 방학, 봄 방학을 이용해서 각 대학으로부터 평양에 집결해서 합숙훈련을 가질 때는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입니다. 꽤 대항의식은 강합니다.

▲ 현재의 코칭 스태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국가대표팀의 코치는 남녀 각각 5, 6명 있습니다. 현재 유도협회의 중추에 있는 코치들입니다.

나는 76년부터 DPR 코리아의 유도를 지도해 왔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때 내가 가르친 제자 제1기생입니다. 코치들의 지도이념은 선수들은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이상이지만 우리들은 다음 DPR 코리아를 젊어서 풀어줄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도 다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치와 선수사이에는 100%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챔피언 노리는

태권전사 16명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태권도 중주국의 명예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제13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여자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16명의 한국대표 선수들은 「종합우승을 차지해야 당연하고 만약 놓치기라도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라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태능선수촌에서 귀중한 땀을 흘리며 실력을 갈고 닦아온 대표선수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세계챔피언을 가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6명의 태권전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세계챔피언은 어릴 때부터의 꿈

핀급

김병태

(22 · 용인대)

96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97년 월드컵 대회를 제패.

주특기는 내려찍기.

어릴 때부터의 목표였던 세계선수권 제패를 꼭 이루겠다는 굳은 각오를 지니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각오로

백합급

김현웅

(25 · 영천시청)

11, 1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2연패, 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우승의 관록을 지니고 있다.

주특기는 뒷차기.

2진 대표선수만 2차례하여 1진으로 선발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세계선수권 3연패 꼭 이루겠다

플라이급

진승태

(24 · 가스공사)

93년과 95년 세계선수권을 2연패하고 94년 월드컵과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제패했다.

주특기는 왼발 앞돌려차기.

선수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이번 세계대회에서 3연패를 이룩하겠다고.



체중조절만 성공하면 자신

페더급

김인동

(21 · 조선대)

9회 이란 혁명기념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대표경력의 전부여서 국제대회 경험은 별로 없는 편.

그러나 스피드와 파워가 전체급 중 가장 뛰어난다는 페더급에서 대표선수로 선발된 것에서 증명되듯 대단한 실력파.

주특기는 360° 회전차기로 효율적인 체중조절 성공 여부가 이번 세계대회의 결과를 판가름나게 할 것이라 자평.

높은 특점력 자랑하는 실력과



윙터급

김 경 훈

(22 · 한국체대)

미들급

이 동 안

(22 · 한국체대)

에비급

김 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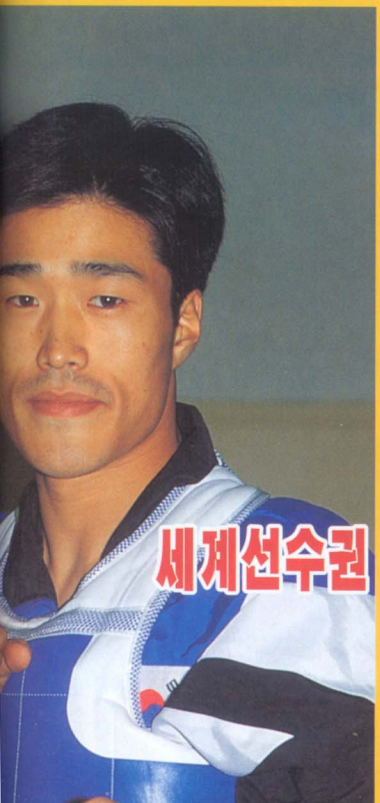
(27 · 삼성물산)

정확하고 무게실린 공격이 밀친

12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특기는 오른발 앞돌려차기와 발볼여차기, 뒷차기.
이번 세계대회에는 어머니의 기대가 특히 커서 무척 부담스럽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술, 담배는 물론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세계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철저히 자제하고 있다.

94년 아시아선수권과 97년 월드컵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전서는 매경기마다 7-8점의 높은 득점을 획득하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외국경기에서 지고온 한국대표선수들이 주변에서 한심하다고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대회보다 국제대회가 몇 배는 더 부담스럽고 이번 세계대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두뇌 플레이에 스피드까지 곁들여



세계선수권 3연패 자신있다

라이트급

심기선

(22·경희대)

97년 월드컵과 96년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했다. 이번 대표평가전서는 예전과 달리 두뇌플레이 보다는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에 치중한 것이 성공. 주특기는 받아차기와 뒷차기이며, 항상 스승님들의 기대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제패를 시작으로 93년 세계선수권, 94년 아시안게임, 95년 세계선수권을 차례로 제패하여 6년째 해비급 정상을 유지해 왔다. 오른쪽 앞돌려차기가 주특기. 소속팀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 다소 긴장된다는 그는 세계대회 3연패를 꼭 이루겠다는 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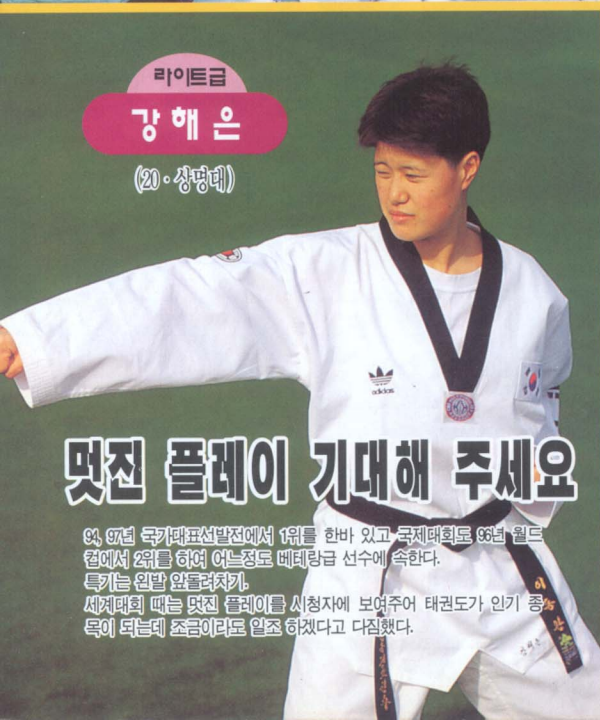
플라이급

은 송 희

(19·한국체대)

그동안 고생 헛되지 않도록

96년, 97년 대표선발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특기는 오른발 앞돌려차기와 뒷차기. 이번 세계대회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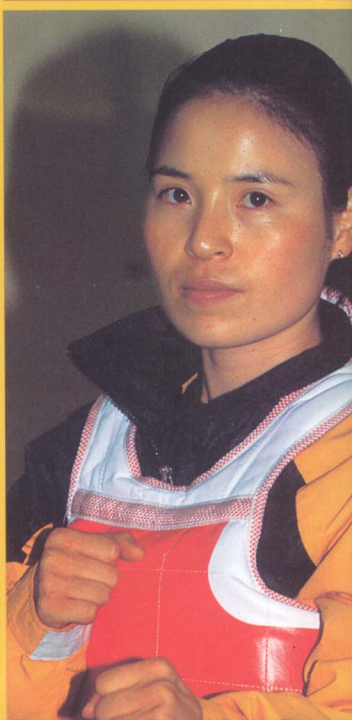
라이트급

강 해 은

(20·상명대)

멋진 플레이 기대해 주세요

94, 97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한바 있고 국제대회도 96년 월드컵에서 2위를 하여 어느정도 베테랑급 선수에 속한다. 특기는 왼발 앞돌려차기. 세계대회 때는 멋진 플레이를 시청자에 보여주어 태권도가 인기 종목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 하겠다고 다짐했다.





핀급

양소희

(21 · 한국체대)

**고개 똑바로 들고
돌아오겠다**

96년 아시아선수권을 제패. 특기는 앞돌려차기와 발붙여차기. 세계대회가 끝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고개 숙이는 선수가 절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맹훈련 중이다.

웃으며 돌아오고 싶다

반데급

황은숙

(24 · 인천시청)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위했다. 특기는 받아차기. 세계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에비급

정명숙

(22 · 경희대)

**3연패로
마지막 장식하고 싶다**

93년, 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96년 호주 아시아대회 우승 등의 화려한 경기전적을 지닌 백전노장이다. 특기는 왼발 발붙여차기와 오른발 돌려차기.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여 반드시 우승을 해오겠다고.

웰터급

조향미

(24 · 경희대)

인생의 최고목표
이루고 싶어

페더급

정재은

(17 · 한림여실교)

아빠 목에 금메달
걸어 드려야겠다

▲ 일찍이 고교시절부터 대표선수 생활을 해온 여자 웰터급의 강자.

96년 아시아선수권과 97년 월드컵을 제패했다.

특기는 발붙여차기와 뒷차기.

여태까지 선수인생의 반은 성공했으나 이번 세계대회가 선수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것이라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 대표급 선수에 진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국제대회 경험은 전무하다. 다만 국내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이미 주목의 대상이었던 선수.

이번 세계대회는 반드시 우승하여 아빠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국내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고 대표선수 발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기는 오른발 받아차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대회를 제패할 것이라고.

미들급

우연정

(19 · 코려테)

정신력으로
우승 노리겠다

표지의 인물

김인동
(국가대표 · 페더급)

adidas

회전 발차기가 일품

360° 회전 발차기가 일품인 김인동(21 · 조선대)은 체중감량에 시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대회 준비에 큰 문제가 없어 우승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대표선수 교체가 가장 빠른 체급인 페더급이지만 세계대회를 적어도 2년 연속 우승하고 싶다고.



세미나 첫머리에서 태권도의 양날개인 역사와 정신을 올바르게 세워줄 것을 당부하는 송중수 원로

태권도 사관 정립 세미나

“정신교육과 실기교육 함께”

지난 9월 27일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태권도 사관 정립을 위한 방향설정과 태권도 정신도출」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용인대의 양진방, 나영일 교수가 태권도 사관 부분을, 원광대 김철 교수와 한양대 이진수 교수가 정신부분을 논의했다.

개회,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태권도사에서 한국의 수수설을 대표하는 양진방 교수에 대해 특히 많은 공격성 질문들이 쏟아졌다.

50년대 이전의 태권도사는 기술과 명칭변경의 측면에서 일부가 아닌 무예사로 다루야 한다는 양교수의 '50년대 기준설'에 대해 태권도 신문사의 연구팀장인 오춘성 기자는 그렇다면 정부조치와 명칭이 변경되어 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역사도 5000년이 아닌 50년인가라는 공격성 질문으로 기존의 다수설을 옹호했다.

원광대 김철 교수의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태권도의 철학적, 정신적 측면과 실기측면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태권도에 있어서 본질적인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교육자의 인격완성이 선행된 뒤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이 병행되어야 이상적 태권도인을 길러낼 수 있다는 김철 교수의 도표에 입각한 설명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이어 계속된 용인대 나영일 교수의 「수박과 권병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매우 많은 고서를 인용한 나교수의 노력에 대한 찬사가 질문보다 많았다.

마지막에 있었던 한국체육대학 안용규 교수의 「태권도 사관 정립을 위한 제언」에서는 태권도가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가라데로부터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안교수 논의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며 커다란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역사부문을 맡아 열정을 토하는 나영일 교수(동인대)



태권도 정신 정립부문 사회를 보는 이승국 교수(한지대)



태권도 사관 정립 부문의 사회를 맡은 안응규 교수(한지대)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본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검찰 교수(원광대)

PHOTO NEWS **화보로 엮어 본**
태권도계 이모저모



태권도 사관 (史觀) 정립을 위한 방향 설정
 태권도 정신을 출현을 위한 세미나
 1997년 11월 27일 개최된 태권도 학회의실 태권도 학회

세미나를 끝마치고 -

왼쪽으로부터 문인자, 안응규, 이진수 교수, 홍중수 원로, 나영일, 양진방, 김철, 이승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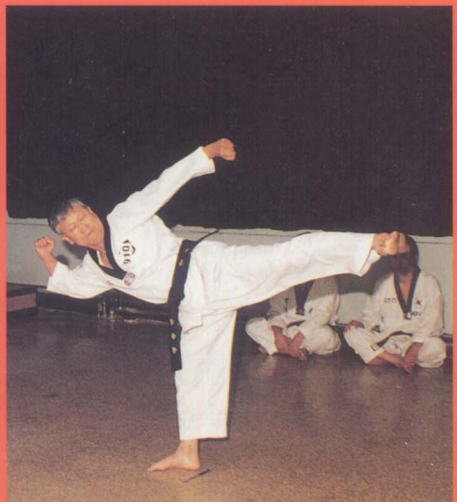
9단 심사를 마치고

카운테카 염윤규 극기원 부원장, 왼쪽 끝이 김순배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힘있는 오른손 주먹지르기를 하고 있는 56세의 배상실씨.



▼날렵한 옆차기를 구사하는 61세의 장기상씨. 대단한 노력장!



40여년 수련 필요

입신 - 9단

승단심사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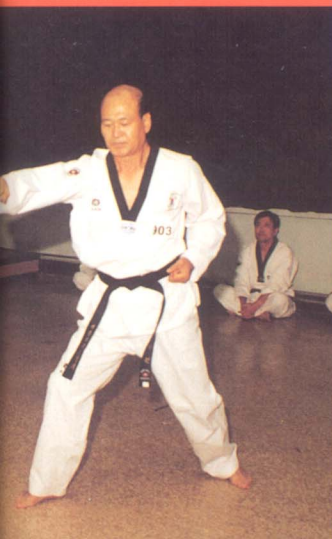
지난 20일 국기원에서 9단 승단심사가 있었다.

입신의 경지라 일컬어지는 9단은 국내외를 합쳐도 100여명에 불과하다.

일정 수련기간이 승단심사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9단이 되려면 최소한 4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9명이 응시한 이번 9단 심사에서 응시자 모두가 50세 이상이었다.

▽원숙한 경지가 엿보이는 61세의 황만년씨.



▲해외 유공사범들과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의 기념 촬영.

해외유공사범 초청간담

해외에 파견되어 태권도 보급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 열린 세계 한민족축전(9월 3 - 10일)에 초청된 유공사범들이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지난 9월 5일 워커힌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해외에서 있었던 사범들의 각종 애환과 애로사항들을 듣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그들을 가능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의 노우종 전무이사(왼쪽)가 해외태권도 보급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있다.



● **군공새 및 격파부문(단체대항)**

- 1위 : 1군 사령부
- 2위 : 3군 사령부
- 3위 : 해병대

● **우수선수상**

- 남자일반부 : 곽택용(국군체육부대)
- 여자부 : 박은신(경희대)
- 군대항 : 안홍업(해병대)
- 남자대학부 : 김동현(경희대)

● **우수지도상**

- 남자일반부 : 서성교(주) 보성
- 여자부 : 최영철(경희대)
- 군대항 : 맹성재(해병대)
- 남자대학부 : 이경호(경희대)

● **종합성적**

부별	순위	1위	2위	3위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	[주]보성	3군사령부
여자부		경희대	용인대	성신여대
군대항		해병대	1군사령부	3군사령부
남자대학부		경희대	용인대	한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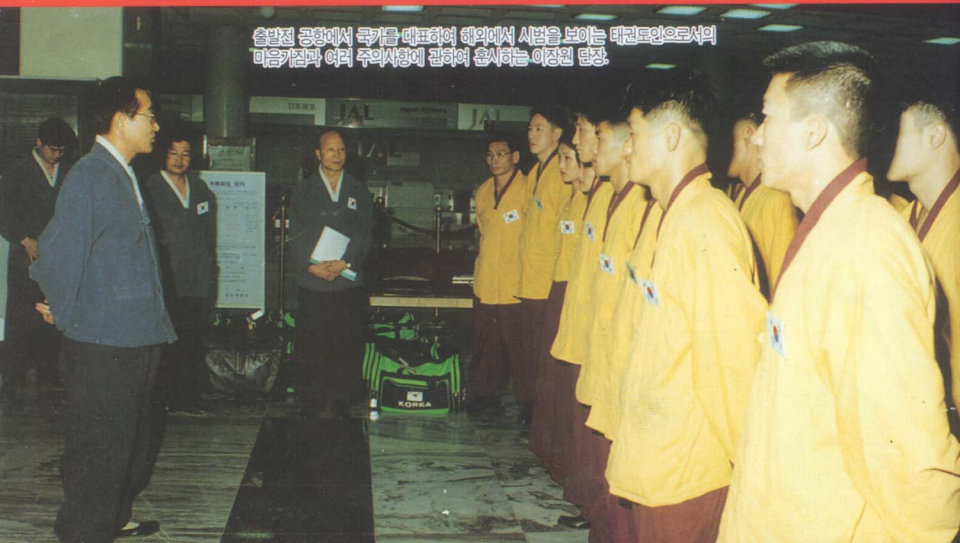


귀신 잡는 해병 소병관(오른쪽)의 오른팔 밑어차기를
군의 강병대가 받아쳐려라 실패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우승자**

구분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일반	김홍일 (상무)	석운용 (보성)	김건일 (보성)	조진호 (상무)	곽택용 (상무)	강동국 (상무)	최승길 (상무)	심재섭 (상무)
남대학	박동중 (충남대)	이기철 (경희대)	정대영 (한체대)	이두건 (경희대)	김동현 (경희대)	정환백 (용인대)	국춘근 (경희대)	이재성 (성균관)
여자	장정은 (경희대)	이산영 (한체대)	이지은 (경희대)	이승민 (삼성물산)	이정숙 (용인대)	정진영 (경희대)	박은선 (경희대)	이옥미 (성신여대)
군대항	정현철 (1군)	소병관 (해병대)	김승윤 (3군)	김영수 (3군)	김정호 (해병대)	안홍업 (해병대)	황동환 (해병대)	국관호 (해병대)

출발전 공항에서 국기를 대표하여 해외에서 시범을 보이는 태권도인으로서는
마음가짐과 여러 주의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경진 단장.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작군 참모총장과 사령관들. 맨 오른쪽은 김동진 국방부장관

경기에선 최선 응원은 더 뜨겁게

국방부장관기대회

제6회 국방부장관기 단체대항대회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상무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학부, 일반부, 여자부, 각군 대항인 이 대회는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군 대항경기는 각군의 자존심이 걸려있어 각군 최고사령관들이 참석하여 독전하는 가운데 선수들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각 군간의 응원전도 열렬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동진 국방부장관의 개회사



축사를 하는 이승원 협회 부회장.



선수선서는 강동국 선수(상무)가

검은 대륙에 태권도

순회시범단 귀국

지난 9월 15일에서 10월 1일까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파견한 순회시범단이 남아공, 케냐, 스와질랜드를 돌며 시범을 보였다. 20명으로 구성된 이 시범단은 국내최고수들로서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국가대표들이다. 가는 곳마다 현지언론과 정부가 열렬한 관심을 보였고 시범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정부고위관료들의 성원에서 중주국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순회시범단의 임원진. 왼쪽부터 시범단 주무인 문정원 협회대리, 코치인 이규형 미들승등학교 사범, 탐정원 이정원 협회이사, 감독인 윤승길 문체부 사기관.



공항에서 출발직전 기념촬영을 가진 순회시범단





2급

지난 9월 9일 국기원 연수원에서 11일간에 걸쳐 2급 사범지도자 연수가 있었다.

이미 3급 사범 연수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 그 대상.

3급에 비해 그 인원이 채 반도 안되는 54명 이어서 태권도 2급 지도자 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범 지도자 교육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228명의 사범이 참여한 가운데 국기원 연수원에서 98기 3급 사범지도자 연수가 있었다. 3급 사범 교육은 공인 4단 이상을 대상으로 5일간 태권도 교육의 전반에 관해 집중교육, 사범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하는 관문이다.

교육 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3급 태권도 지도자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하며 불합격자는 재교육을 받고 재응시해야 한다.

3급

